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

마을여행편

책머리에

이 책을 만든 이들은 금천마을지기 6기입니다.

마을지기가 뭐냐고 물으시겠죠?


마을지기는 금천구에만 있는 새내기 마을활동가 교육과정으로
‘마을을 잇고 지역을 기록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에 미리 살고 있었던 선배 주민으로서
새롭게 금천구에 이사 온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꿀팁을 담아 책을 엮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씨의 사사로운 마을 여행’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미리 살고 있던 주민들이
새로 이사 온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은밀하고도 핫한 장소들이 책 곳곳에 숨어있네요.

책을 따라 사사로운 마을 여행을 함께 하면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왠지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이사 와서 서먹하고 낯선 사람들이
왠지 이 동네 살만하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목차

004 |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나요?

- 민원24 활용하기
- 전입 신고하기
- 우리동네 무인발급기 위치는요?
- 우리 아이 전학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 가스연결 및 철거는요?
- 여권신청은 이렇게 해요
- 복지서비스 무엇이 있을까요?
- 각 동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는요?
- 전입자를 위한 약속 - 이렇게 하기로 해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❶ 우리동네 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❷ 쓰레기종량제 봉투사용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❸ 우리동네 음식물쓰레기 배출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❹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❺ 재활용품 배출안내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❻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이렇게 하기로 해요 ❼ 정화조 청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❶ 금천구청, 금천구보건소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❷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6 | 전입자를 위한 ○○씨의 사사로운 마을여행

- 같이 마을로 여행을 떠나 볼까요?
- 마을지기와 함께하는 마을 여행

가산동 | 독산1동 | 독산2동 | 독산3동 | 독산4동 | 시흥1동

시흥2동 | 시흥3동 | 시흥4동 | 시흥5동 | 금천구

136 | 마을에서 만난 사람들 : 휴먼스오브금천

- 50+마을기록활동가가 만난 65명의 사람들

140 | 참여후기

148 | 센터소개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나요?

금천구는요,
10개동으로 이루어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구입니다.

작지만 정이 넘치는 금천구에는
새내기 마을활동가들이
금천마을지기학교를 통해
매년 새로운 마을 안내 자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2019년 20명의 동별 마을활동가인
금천마을지기6기 수료생들과 함께 만든 마을안내서를 소개합니다.



2019 금천마을지기 활동백서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

(주요정보안내)

민원24 활용하기

민원24는 국민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을 안내받고, 신청하고, 발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민원24”를 검색하시거나(www.minwon.go.kr) 1588-2188로 문의

▶ 서비스 내용 : 민원발급 및 신청 등 3,020여 종

▶ 민원발급 :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 토지(임야)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병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지적도(임야도)등본, 출입국사실증명,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

▶ 민원신청 : 전입신고,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증분실(철취)신고, 통신판매업 신고,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 민원24 신청 시 발급수수료 무료 : 주민등록표 등·초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60종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 발급 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전입 신고하기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대주 또는 세대주 위임을 받은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신분증(위임 시 추가서류 있음)을 지참하여 전입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세대주 신고시 | 전입신고서, 전입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위임자 신고시 |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 위임자 자격은 ① 세대주의 배우자 ② 세대주의 직계혈족 ③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혈족 ④ 세대주 직계혈족의 배우자 ⑤ 세대원에 한함

신고방법

· 전입할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증서의 작성일로부터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은 날짜를 말합니다.

법적 문서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밟은 경우 등 작성 날짜에 대해 완전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도가기 때문에 해당제도를 이용하면 작성 날짜에 대한 논란이 생길 때 입증이 용이합니다.

확정일자 부여받는 방법

▶ 동 주민센터, 공증사무소, 등기소에 가서 받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 서류를 지참하여 정해진 수수료를 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무인발급기 위치는요?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및 이용시간

연번	설치장소	운영대수	운영시간
1	금천구청 1층 로비	2	05:00 ~ 익일 02:00
2	금천구청 통합민원실 내(법원 전용)	1	평일 09:00 ~ 18:00
3	가산디지털단지(1번 출구)	1	05:00 ~ 익일 02:00
4	가산디지털단지(7번 출구)	1	05:00 ~ 익일 02:00
5	독산역	1	05:00 ~ 익일 02:00
6	가산동 기업시민청(현대아울렛 6층)	1	11:00 ~ 21:30
7	독산동 시티렉스 1층	1	10:00 ~ 22:00
8	홈플러스 시흥점 1층 후문	1	10:00 ~ 23:00
9	금천세무서	1	09:00 ~ 18:00
10	각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독산분소 포함)	11	평일 09:00 ~ 18:00
11	가산동 기업지원센터(법원 전용)	2	평일 09:00 ~ 18:00

※ 등기부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구청과 동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

▶▶▶ 발급가능시간 : (구청) 매일 05:00 ~ 익일 02:00 / (동주민센터) 평일 09:00~18:00

가스 연결 및 철거는요?

금천구는 귀뚜라미에너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문의전화 : 1670-4700

※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 불가

▶▶▶ 처리시 가스계량기의 검침 지침에 따라 체납여부 확인 및 요금 정산을 합니다

▶▶▶ 자동납부 이용시 이사 전 자동이체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구분	금액	세부내역	비고
이사(전입)시 가스렌지 연결	11,000원	재료비 퓨즈콕 : 7천원 호 스 : 4천원(기본2M) ※1M추가시 2천원 추가	이사왔을 경우만 해당
가스렌지 교체시 (전기인덕션 포함)	16,000원	-	기존 제품 교체시

여권 신청은 이렇게 해요

신청서류를 챙겨 금천구청1층 민원여권과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자필작성), 여권용사진1매, 신분증, (구)여권(경신자에 한함)

신청자격

▶▶▶ 성년 | 본인신청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이 신청(친권지정시 친권자가 신청)

여권발급 소요기간

▶▶▶ 4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여권발급 확인 후 24시간 (여권분류작업 소요시간) 경과 이후 찾으러 가면 됩니다.

매주 목요일에는 저녁에도 신청이 가능

▶▶▶ 민원여권과 연장근무 안내 (Tel. 02-2627-2230~1)

▶▶▶ 연장근무시간 | (평일) 매주 목요일 18:00 ~ 20:00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www.geumcheon.go.kr/html/048/048002002002.html>



우리 아이 전학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초등학생

전입신고 동 주민센터에서 초등학교 배정 → 전입신고서 접수증 발급 → 배정학교 제출

※ 온라인 전입신고 시 민원24에서 '초등학교 배정확인증' 출력

중·고등학생

주소지 관할 교육청 문의 : 서울교육콜센터 ☎02-1396

전학 시 학교에서 받는 기본 서류는요?

- ① 전입원서
- ② 아동상담 기초조사표
- ③ 스쿨뱅킹, 우유급식등 신청서 제출 등

방과 후 아이돌봄 등 다양한 돌봄 관련 문의는요?

미취학아동

금천구청 여성보육과 ☎ 02-2627-1429 또는 금천구건강가정지원센터 ☎ 02-803-7748

아동·청소년

금천구청 교육지원과 ☎ 02-2627-2845

금천구 학교정보는요?

초등학교

학교명	설립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동경초등학교	사립	02-803-9805	02-892-7260	http://www.dongke.es.kr	153-0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산100-4번지
서울가산초등학교	공립	02-864-3206	02-859-0183	http://www.gasan.es.kr	153-80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43-23
서울금성초등학교	공립	02-809-2125	02-809-2130	http://www.geum-dong.es.kr/	153-032 서울 금천구 시흥2동 1013-1
서울금산초등학교	공립	02-806-0254	02-806-7686	http://www.gumsan.es.kr	153-850 서울 금천구 시흥동 653-27
서울금천초등학교	공립	02-802-4970	02-802-9203	http://www.kumcheon.es.kr	153-84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218-6
서울독산초등학교	공립	02-895-0535	02-895-0646	http://www.doksan.es.kr	153-830 서울 금천구 독산2동 1034번지(시흥대로 104길 31호)
서울도산초등학교	공립	02-804-1112	02-806-2938	http://www.doosan.es.kr	153-011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002-5
서울문교초등학교	공립	02-896-0144	02-895-3221	http://www.mungyo.es.kr	153-0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산202-1번지
서울문백초등학교	공립	02-803-4155	02-892-2269	http://www.munbaek.es.kr	153-0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43-1(시흥동, 문백초등학교)
서울문성초등학교	공립	02-867-1669	02-855-3660	http://www.munsung.es.kr	153-01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시흥대로460
서울백산초등학교	공립	02-802-6475	02-803-8820	http://backsan.es.kr	153-84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438-5
서울시흥초등학교	공립	02-892-4127	02-892-4128	http://www.seoulsiheung.es.kr/	153-856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1-19
서울신흥초등학교	공립	02-894-5148	02-894-5141	http://www.sinheung.es.kr/	153-03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시흥동 704-56
서울안전초등학교	공립	02-894-0858	02-809-8156	http://anchun.es.kr	153-833 서울 금천구 독산1동 한내로 69-16
서울영남초등학교	공립	02-861-7147	02-852-1013	http://www.yeoungnam.es.kr	153-0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59-27번지(산기슭1길 60)
서울정심초등학교	공립	02-856-5188	02-853-9272	http://www.jungshim.es.kr	153-808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4동 182-44번지
서울탑동초등학교	공립	02-894-6050	02-802-6146	http://www.topdong.es.kr	153-84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230번지
서울흥일초등학교	공립	02-803-5792	02-894-7170	http://www.heungil.es.kr	153-85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4동 792-1

중학교

학교명	설립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가산중학교	공립	02-804-1777	02-892-8477	http://www.gasan.ms.kr	153-8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300-21
난곡중학교	공립	02-838-8033	02-859-2141	http://nangok.ms.kr	153-820 금천구 독산3동 906-41 번지
동일중학교	사립	02-803-9805	02-892-7260	http://www.dongil.ms.kr	153-0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산100-4번지
문성중학교	공립	02-858-8446	02-838-8010	http://www.munseong.ms.kr	153-805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1
문일중학교	사립	02-802-2301	02-893-5094	http://www.moonil.ms.kr	153-03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1동 559-1
세일중학교	공립	02-856-0868	02-858-8027	http://www.seil.ms.kr	153-806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1동 147-2
시흥중학교	공립	02-895-2301	02-895-2300	http://www.shi-heung.ms.kr	153-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3동 산24-15
안전중학교	공립	02-894-1204	02-894-5220	http://www.anchon.ms.kr	153-833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089번지
한울중학교	공립	02-856-4941	02-858-5382	http://www.hanwool.ms.kr	153-8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897-1번지

고등학교

학교명	설립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금천고등학교	공립	02-896-3186	02-896-3187	http://keumcheon.hs.kr/	153-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38길 26 금천고등학교
독산고등학교	공립	02-857-6248	02-857-6247	http://www.doksan.hs.kr	153-820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894~908 907-34
동일여자고등학교	사립	02-803-9805	02-892-7260	http://www.dongilg.hs.kr	153-0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산100-4번지
동일여자상업고등학교	사립	02-803-9805	02-892-7260	http://www.dongil-cd.hs.kr	153-03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2동 산100-4번지
문일고등학교	사립	02-802-2301	02-893-5094	http://moonil.hs.kr	153-847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5(시흥동)
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	02-896-1094	02-896-1096	http://www.kugak-am.hs.kr	153-03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8길 62 전통예술고등학교

자세한 사항은 서울남부교육청을 검색하면 좋습니다.

서울남부교육청 홈페이지 : <http://nbedu.sen.go.kr/>

우리동네 유치원 · 어린이집은 어디 어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좋습니다.

금천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ppycare.or.kr/index.php>

이용대상

- ▶▶ 개인회원 | 만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금천구민 및 금천구 관내 직장인, 금천구 보육교직원
- ▶▶ 단체회원 | 금천구 내 어린이집

이용시간(시흥점 · 독산점 동일)

- ▶▶ 월요일 ~ 금요일 9:00 ~ 18:00
- ▶▶ 토요일 10:00 ~ 17:00
- ※ 점심시간 12:00 ~ 13:00

우리동네 유치원 어린이집 정보조회 홈페이지

- <https://e-childschoolinfo.moe.go.kr/main.do>

복지서비스 무엇이 있을까요?

신청방법은 각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주거·의료

교육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이하인 가구
※ 맞춤형 개별급여 종류별 선정기준(2019년 1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금액	512,102원	682,803원	751,084원	853,504

교육급여 |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사업

1.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280,256	2,179,896	2,820,024	3,460,152	4,100,280	4,740,408

▶ 재산기준

- ☑ 일반재산 | 188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생계지원	441,900	752,600	752,600	1,194,900	1,415,900
의료지원	300만원 범위 내				
주거지원	387,200		643,200		848,600
교육지원	초등학교 : 221,600 / 중학교 : 352,700 / 고등학교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기 타	연료비(동절기 10월 ~ 3월, 98,000원), 해산비(600,000원) 장제비(750,000원), 전기요금(500,000원이내)				

- ▶ 문 의 | 가산동주민센터 ☎ 02-2104-5226

2.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1,450,957	2,470,549	3,196,027	3,921,506	4,646,984	5,372,462

- ▶ 재산기준 | 242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등

(단위: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가구 이상
생계지원	300,000	500,000	700,000	1,000,000	1,000,000
의료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주거지원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기 타	교육비 : 초(221,600원), 중(352,700원), 고(432,200원, 수업료 + 입학금)				
	연료비 : 98,000원, 해산비 60만원, 장제비 75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 ▶ 문 의 | 가산동주민센터 ☎ 02-2104-5219

3.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지원대상

- ☑ 매년 1월 1일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시 주민등록 등재자
-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실시한 경우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1개월 동안 10일이상 근로를 3개월간 연속 유지한 자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한 자
중복 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산재보험, 실업급여, 자동차보험

▶ 선정기준

- ☑ 실제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해당

<2019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 8,027,552원)

- ☑ 재산 : 2억5천만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지원내용

- ☞ 지원일수 : 연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지원금액 : 1인 1년 최대 892,980원, 1일 81,180원(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 입원 : 입원일수(최대 10일)×81,180원
-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81,180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시 비대상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준비하여 방문, 등기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문의사항

- ☞ 다산콜센터 ☎120 / 금천구보건소 보건의료과 ☎02-2627-2689
- ☞ 가산동주민센터 ☎02-2104-5226

보육지원사업

1.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구 분	출산장려금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 상	금천구 출생신고 아동 중 둘째 이후부터 지원	금천구 출생신고 아동의 가정
지원내역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넷째 100만원	10만원 상당 출생축하용품
문 의	02-2104-5225	

2. 아이돌봄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

모집기간 | 상시모집

신청방법

- ☞ 정부지원유형 :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 본인부담유형 : 아이돌봄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시간제 돌봄서비스 /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일반형(시간당 9,650원), 종합형(시간당 12,550원), 유형별 본인부담금 상이

문의 | 가산동주민센터 ☎02-2104-5225

3. 아동수당 지급

- ☞ 지급대상 | 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
- ☞ 지급액 | 아동 1명당 월 10만원 지급
- ☞ 신청 | 동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4. 가정양육수당 지원

- ☞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 지원금액

(단위:원)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양육수당
0~11	200,000	0~35	200,000
12~23	150,000		
24~85	100,000	36~85	100,000

노인복지

1. 기초연금

- ☞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 (2019년 기준, 1954년생)
-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노인 단독(137만원 이하), 노인부부(219만원 이하)
- 수령연금액 | 단독 : 최소 25,000원 ~ 최대 250,000원 부부 : 최소 25,000원 ~ 최대 200,000원
- *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최대 30만원 수급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5만원, 부부가구 8만원)
- ☞ 문의 | 가산동주민센터 ☎02-2104-5224

2. 우대용 교통카드

- ☞ 지급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영주권자(F-5)
- ☞ 신청장소 | 서울시 동 주민센터
- ☞ 유의사항 | 분실한 경우 재발급 수수료 3,000원
- ☞ 문의 | 가산동주민센터 ☎02-2104-5224

방문형 서비스 사업

연 번	기관 구분	사업구분	주요대상	사업내용	제공기관	주기
1	공 공 기 관	통통희망 나래단	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요보호대상 가구	· 민간자원 발굴 · 연계 등 · 대상자 안부확인 등	가산동주민센터	주1~2회
2		방문건강 관리서비스	2015.7. 부터 보편방문으로 변경 (65세이상 어르신, 건강취약계층)	· 만성질환의 투약 및 합병증 관리 등 · 임신 · 산후 건강 및 영유아 건강관리 · 허약노인 건강문제 관리	가산동주민센터	(집중관리군) 1~2주 간격으로 8주 방문 (정기관리군) 6개월이내 1회 (자기역량지원군) 연1회 방문 또는 전화
3		동주민센터 방문상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구	· 복지대상자 방문 등 모니터링 · 사례관리대상 발굴, 자원 연계 등	가산동주민센터	수시
4	민 간 기 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필요)	· 안전 확인 · 생활교육(건강관리, 운동, 영양관리)	금천노인종합 복지관	주1회
5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을 받은 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이하자	· 신체활동지원 · 가사일상생활지원	금천지역자활센터 청담복지관 행복한노인 요양방문센터	주2~3회
6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만6세 이상 65세미만 등록 중증 장애인 (일상생활 · 사회활동 곤란)	· 신체활동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및 이동의 보조	금천장애인복지관 금천지역자활센터 금천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사회복지법인상금회 청담종합복지관	주5회
7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만65세미만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 또는 6개월이상 치료 요하는 자	· 신체활동지원 · 가사지원 · 간병지원	금천지역자활센터 행복한노인 요양방문센터	주1~3회
8		장기요양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	만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 신체활동지원 ·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목욕서비스	청담복지관 (방문목욕센터)	주1~5회
9		재가복지 서비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홀몸노인가구 등 위기가구	· 밀반찬배달사업 · 도시락배달사업 등	복지관(금천노인, 금천호암, 가산,청담) 티뷰크재단 굿하트재가노인지원센터	주1~2회
10		노인학대 예방사업	학대판정노인	· 상담 및 일시보호 등	서울시립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천주교까리따스 수녀회유지재단)	필요시

각 동 주민센터 위치와 연락처

연번	구분	주소	연락처
1	가산동주민센터	(우)08516 금천구 가산로 129	02-2627-2501 (행정민원팀) 02-2627-1890 (마을자치팀) 02-2627-2502 (지역복지팀)
2	독산1동주민센터	(우)08523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02-2627-2503 (행정민원팀) 02-2627-1891 (마을자치팀) 02-2627-2504 (지역복지팀)
3	독산2동주민센터	(우)08618 금천구 독산로 179	02-2627-2505 (행정민원팀) 02-2627-1892 (마을자치팀) 02-2627-2506 (지역복지팀)
4	독산3동주민센터	(우)08541 금천구 독산로317	02-2627-2507 (행정민원팀) 02-2627-1893 (마을자치팀) 02-2627-2508 (지역복지팀)
5	독산4동주민센터	(우)08558 금천구 독산로232	02-2627-2509 (행정민원팀) 02-2627-1894 (마을자치팀) 02-2627-2510 (지역복지팀)
6	시흥1동주민센터	(우)08628 금천구 시흥대로58길 36	02-2627-2513 (행정민원팀) 02-2627-1895 (마을자치팀) 02-2627-2514 (지역복지팀)
7	시흥2동주민센터	(우)08645 금천구 금하로 764	02-2627-2515 (행정민원팀) 02-2627-1896 (마을자치팀) 02-2627-2516 (지역복지팀)
8	시흥3동주민센터	(우)08653 금천구 시흥대로 18길 40	02-2627-2517 (행정민원팀) 02-2627-1897 (마을자치팀) 02-2627-2518 (지역복지팀)
9	시흥4동주민센터	(우)08569 금천구 독산로36길 14	02-2627-2519 (행정민원팀) 02-2627-1898 (마을자치팀) 02-2627-2520 (지역복지팀)
10	시흥5동주민센터	(우)08573 금천구 금하로21길 20	02-2627-2521 (행정민원팀) 02-2627-1899 (마을자치팀) 02-2627-2522 (지역복지팀)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① 우리 동네 쓰레기 배출

쓰레기 배출은 이렇게

▶▶ 배출시간 | 격일제로 지역별 지정된 요일에 일몰 후 ~ 24:00시 사이에 배출
(시흥대로 등 주요도로 상가지역은 22:00 ~ 그 다음날 01:00까지)

▶▶ 배출장소 | 재활용쓰레기정거장, 내 집(대문) 앞, 내상가 앞
※ 인도나 가로수 앞에 배출하지 마세요!

▶▶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일반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넣어 지정된 요일에 배출
- 겨울철 낙엽폐기물 | 일반쓰레기와 동일하게 배출
- 연탄재 | 일반사업장은 일반 생활폐기물용 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 차상위계층, 재래시장 | 투명한 비닐에 담아 배출
- 음식물류폐기물 | 물기를 최대한 줄여 음식물만 전용봉투에 넣어 배출
- 재활용품 |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
- 대형폐기물 | 인터넷 배출신고 또는 전화접수신고(동주민센터, 청소행정과) 후 배출

우리구 쓰레기 수거는 이렇게

▶▶ 수거체계 | 위탁 또는 직영수거

- ◇ 위탁수거 | 일반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 ◇ 직영수거 | 대형쓰레기

▶▶ 수거방법 | 정시수거 / 격일제 문전수거

- ◇ 일반 •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 24:00~08:00
- ◇ 대형쓰레기 | 13:00~15:00

※대행업체에서 수거일에 수거 누락 및 잔재쓰레기 미수거 시에는 지역별 대행업체 또는 청소행정과 (☎02-2627-2375)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오전 11:00까지 수거가 안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출하신 종량제봉투를 내집 대문 안으로 놓아 주신 후 격일제 배출시간에 배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②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쓰레기 종량제란?

▶▶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면 처리비도 그만큼 많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종량제 봉투는요?

- ▶▶ 가까운 규격봉투 판매소(슈퍼, 편의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구입 가능
- ▶▶ 일부 판매소에서 규격별 품목을 미 확보할 경우에 주문 및 수량 확보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구입문의는 청소행정과 ☎02-2627-147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 판매처 사이트 안내 | 금천구청 홈페이지 → 생활민원 → 청소 → 쓰레기종량제봉투

◇ <http://www.geumcheon.go.kr/program/board/list.jsp?menuID=001003005001002&boardTypeID=164>
총 446개의 판매처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구분	용량(ℓ)	비용(원)	비고
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	1	100	
	2	190	
	3	300	
	5	500	

마을지기6기 ○○님의 에피소드

얼마전에 바로 옆동네로 이사를 했는데요
우리집 근처에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을 모르겠더라고요ㅠㅜㅠ
결국은 전에 살던 곳까지 가서 구입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③ 우리 동네 음식물쓰레기 배출

이렇게 내어 놓기로 해요

- ▶▶▶ 배출요일 | 지역별 일·화·목 / 월·수·금 격일제로 지정된 요일에 배출
- ▶▶▶ 배출시간 | 일몰 후 ~ 24:00까지
- ▶▶▶ 배출방법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장비에 세대별 카드(RFID) 인식 후 배출



배출방법	배출요금
RFID 종량제 방식수거	매월 관리비에 포함 남부 1kg당 130 원

음식물쓰레기 개별 계량기기 사용방법



1 장비의 리더기부분에 카드를 인식



2 투입구가 열리면 음식물쓰레기 투입



3 투입구가 끝나면 카드를 다시인식



4 투입구 닫힌후 배출량 표시 및 음성안내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 각 동 주민센터에서 무상 제공하는 전용 용기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구분	1ℓ	2ℓ	3ℓ	5ℓ	10ℓ
종량제 봉투 판매가	100 원	190 원	300 원	500 원	1,000 원

[소형음식점] 각 동별 청소대행업체와 계약 한 후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 내 점포 앞에 배출



+



구분	10ℓ	25ℓ	60ℓ	120ℓ
납부필증 판매 가격	1,400 원	3,500 원	8,400 원	16,800 원

[다량배출사업장] 민간처리업체와 계약하여 배출하고 구청에 배출량 신고



구분	기준	수거계약체결
다량배출사업장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 - 1일 100인 이상 급식 - 대규모 점포, 호텔, 콘도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와 자체계약 (영업장 책임처리)

※ 음식물쓰레기 배출 할 때에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해 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④ 음식물쓰레기 종류별 배출요령

구분	배출구분	물질내용	배출요령
채소류	일반쓰레기	쪽파, 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 씨, 고추대, 마른 마늘대, 옥수수대의 껍질, 양파껍질, 생강껍질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통무, 통호박, 통배추, 미역, 다시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겨울철 김장쓰레기	배추, 무 등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기간 : 11월 중순 ~ 12월말까지)
과일류 (견과류 포함)	일반쓰레기	호도, 밤 등의 껍데기, 땅콩, 도토리, 코코넛, 파인애플 등의 껍질, 복숭아, 살구, 감 등의 핵과류의 씨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굴껍질, 통과일 수박, 망고 등의 껍질 (부피가 큰 과일 등의 껍질)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곡류	일반쓰레기	왕겨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육류	일반쓰레기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내장, 비계, 살코기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어패류	일반쓰레기	조개, 소라, 전복, 꼬막, 멍게, 굴 등의 패류 껍데기, 게, 가재 등의 갑각류 껍데기, 생선뼈, 복어의 내장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함유된 독성으로 사료화에 적절치 않으므로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생선내장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동물의 알(껍질)	일반쓰레기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껍데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기타	일반쓰레기	한약찌꺼기, 각종차(녹차 등) 찌꺼기	생활폐기물 일반규격봉투에 넣어 배출
	음식물쓰레기	해초류, 젓갈류, 김치, 자장면의 춘장, 된장, 고추장의 장류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

잠깐! 음식물류 폐기물로 넣어서는 안되는 물질 →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채소류 고추대, 양파껍질, 마늘, 생강껍질, 옥수수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호두·땅콩·도토리·매실씨꺼기(씨가 있는 경우만)·코코넛·밤·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감·살구 등의 핵과류의 씨. 단, 부피가 크고 껍질이 단단한 과일류는 잘라서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 (수박·메론 등) 	
곡류 왕겨 	육류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어패류 조개·소라·전복·꼬막·굴 등 어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알껍질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알껍질 	차류 찌꺼기, 티백 (녹차 등), 한약재 찌꺼기 	기타 나무이쑤시개, 고무장갑, 유리조각 등 

음식물 쓰레기의 구분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는?

파쇄성 핵과류의 씨 	유해성 복어·귀장 	복합성 티백 
껍데기 (감·복숭아 등) 	뼈 (닭·돼지 등) 	한약재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

1. 물기를 꼭 짜서 최대한 수분을 제거함
2. 일회용 비닐봉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등의 이물질을 제거함
3. 길이가 길거나 덩어리가 큰 음식물의 경우, 잘게 썰어 폐기물의 크기를 적게 하여 배출함
4. 지자체별 배출 요일 및 배출시간을 확인함

출처: 환경부 환경통계포털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⑤ 재활용품 배출안내

이렇게 내어 놓기로 해요

- ▶▶▶ 배출요일 | 지역별 일·화·목, 월·수·금 격일제로 지정된 요일에 배출
 - ▶▶▶ 배출시간 | 일몰 후 ~ 24:00까지
 - ▶▶▶ 배출방법
 - ◇ 공동주택에서는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분리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
 - ◇ 단독주택에서는 투명한 비닐 봉투나 속이 보이는 비닐 봉투에 담아 내 집 앞에 배출
- ※ 검은봉투(불투명 비닐 봉투)에 배출한 재활용품은 수거되지 않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실시 지역은요

- 독산3동, 독산4동, 시흥3동은 재활용정거장을 통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 할 수 있습니다.



※ 독산3동 및 시흥3동은 집 앞 배출과 재활용정거장 배출 둘 다 가능 합니다.

[운영 요일 및 시간]

◇ 독산3동 : 매주 일·화·목 또는 월·수·금요일(문전수거 요일과 동일) 17시 ~ 21시

◇ 시흥3동 : 매주 월, 목요일 18시 ~ 21시

※ 독산4동은 재활용정거장을 통한 배출만 가능합니다.

[운영 요일 및 시간]

◇ 독산4동 : 매주 화, 금요일 15시 ~ 21시

우리동네 재활용품센터 안내

재활용품센터 현황

번호	소재지	재활용품센터명	연락처	홈페이지
1	시흥대로 182 (시흥동 903-6)	금천구 재활용 센터	802-7282	
2	독산로 303 지하 (독산동 990-2)	금천구지정 독 산동재활용센 터	863-7282	www.jungo7282.co.kr

운영형태

- ▶ 판매 | 시중의 중고품가격 대비 염가판매
- ▶ 수리 | 소유자가 수리를 원하는 경우 수리(수리비 염가징수)
- ▶ 교환 및 위탁 |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교환 및 위탁판매

마을지기6기 ○○님의 이야기

취급품목이 워낙 다양해서요.

구청 홈페이지를 보아도 재활용가능품만수거한다고 나와 있다 보니 해석에 따라서 다양하잖아요.
자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위에 소개된 업체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세요^^



폐가전도 자원이 될 수 있어요

폐금속자원재활용 사업이란?

- ▶ 2010.1.1부터 바뀌는 도시광산화 사업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 ▶ 안 쓰는 가전제품과 휴대폰에서 팔라듐, 로듐 등 희귀금속과 금, 은, 동의 귀금속을 회수하여 자원화 하는 녹색성장 사업입니다.
- ▶ 폐금속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은 불우이웃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쓰여 집니다.

소형 폐가전제품을 수수료 없이 배출하실 수 있습니다

- ▶ 소형 폐가전제품은 '재활용품을 내놓는 날'에 지정 장소(단독주택은 대문 밖, 공동주택은 관리 사무소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해주세요.
- ▶ 폐휴대폰은 전용수거함(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3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사무소 /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 / 초중고등학교 행정실 / 가전사 및 휴대폰 판매 대리점, 서비스 창구에 설치) 또는 소형 폐가전제품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폐가전 수수료 면제 대상 품목

- ▶ 소형 폐가전 무상으로 수거 합니다.
 -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청소행정과(02-2627-1476)로 전화 신고 시 무상수거
- ※ 소형폐가전 수수료 면제대상 품목

연번	품목	규격	연번	품목	규격	연번	품목	규격
1	핸드폰		12	가스레인지		23	프린터	
2	선풍기		13	녹즙기, 믹서기		24	스캐너	
3	전화기		14	식기건조기, 세척기		25	팩시밀리	
4	청소기	진공, 스팀	15	전기밥솥		26	시계	
5	카세트라디오		16	전자레인지		27	다리미	
6	탈수기	가정용	17	커피포트		28	오디오본체	높이1M미만
7	헤어드라이기		18	노트북		29	오디오스피커	
8	VTR		19	컴퓨터본체		30	정수기	
9	가습기		20	컴퓨터모니터	LCD	31	공기청정기	
10	난로	전기(가스), 벽걸이	21	키보드		32	가스오븐 레인지	
11	에어컨실외기		22	타자기		33	기타소형가전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⑥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대형폐기물이란?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개별 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 제품, 냉·난방기 등 폐기물을 말합니다.

※ 대형폐가전(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1m이상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2012. 9. 10부터 시행)

▶ 인터넷(www.edtd.co.kr) 또는 전화(1599-0903)로 방문일 예약접수 후 수거업체에서 직접 방문수거

※ 소형폐가전(컴퓨터, 프린터, 선풍기, 오디오 등)은 청소행정과로 전화 신고 시 무상 수거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 인터넷으로 배출신고 전자지불 서비스에 의거 수수료 납부(회원은 로그인, 비회원은 실명인증을 통해 배출신고 가능)
- 신고필증을 개별 출력하여 부착 후 배출
- 프린터가 없는 경우 접수번호, 폐기물 명, 규격, 주소 등을 기재하여 품목에 붙여 배출
- 금천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전화 신청
- 대형폐기물신고필증 규격봉투판매업소에서 수수료 납부하여 신고필증 구매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행정과에 전화로 배출신고
- 신고필증 부착하여 배출(아파트나 사업장은 별도로 지정된 장소, 단독주택은 문 앞) ·금천구청에서 배출된 대형폐기물 수거
- ※ 대형폐기물을 무단 투기 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



대형폐기물 관련문의는 청소행정과 ☎ 02-2627-1476

이렇게 하기로 해요 ⑦ 정화조 청소

분뇨수거 및 정화조 내부청소 신청방법

· 정화조 청소업체 현황

대행업체	담당동	전화번호	소재지
고려정화(주)	가산동, 독산3동, 독산4동, 독산1동 일부 지역	855~6176~7	금천구 독산로 70, A동 2409호 (독산동, 현대지식산업센터)
신흥정화(주)	시흥1동 ~ 시흥5동, 독산2동, 독산1동 일부 지역	855-8624~5	금천구 독산로 108-1, 2층 (시흥동)

· 우리동네 분뇨수거 및 정화조청소 대행업체에 전화신청은요?

- 가산·독산지역(독산2동 제외), 독산1동 일부지역

→고려정화(주) 전화번호 : 855-6176~7

- 시흥동지역, 독산2동, 독산1동 일부지역

→신흥정화(주) 전화번호 : 855-8624~5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단위 : 원)

구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분뇨	18 ℓ	230원
정화조	기본	0.75 m ² 까지
	초과	0.1 m ² 당
	지하할증	정화조청소요금
		7.0%

※ 지하할증 : 흡인식 차량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 작업에 한하며 자체 가압펌프 사용 시 제외함

마을지기6기 ○○님의 이야기

정화조청소를 년1회이상 실시해야 하는데요 왜 해야 할까요?

정화조 내부청소는 수세식 화장실에서 분뇨가 정화조로 유입되어 정화되는 과정 중 정화조 상부에서 스크(Scum, 부유물)이 형성되고 일부 분뇨의 찌꺼기(Sludge)가 가라앉게 되며 청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오수관로의 막힘과 정화조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분뇨의 찌꺼기가 하수도 및 강으로 흘러들어 수질을 오염시키게 된답니다.



정화조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조치

- 청소예고문 및 촉구문 발송 후 미이행자에 의견제출 통지 후 10만원이상 100만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에 대하여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

정화조 청소 및 문의는 금천구 환경과 ☎ 02-2627-1513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① 금천구청, 금천구보건소

- ▶ 위치 |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 ▶ 대표전화 | ☎ 02-2627-2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됨)
※ 야간·공휴일 02.2627-230
- ▶ 홈페이지 | www.geumcheon.go.kr

The screenshot shows the official website of Geumcheon-gu. The main banner is for the 'Geumcheon-gu 2nd Resident Self-Government Committee Recruitment'. It includes details about the application period (2019. 10. 14. ~ 2019. 11. 14.), eligibility (residents aged 19 and over), and a list of neighborhoods and their corresponding election numbers. The page also features a navigation menu at the top and a sidebar with various services.

동	전와번호	동	전와번호
가산동	02-2104-5543, 5542	시흥1동	02-2104-5642, 5643
독산1동	02-2104-5562, 5563	시흥2동	02-2104-5662, 5663
독산2동	02-2104-5582, 5583	시흥3동	02-2104-5682, 5683
독산3동	02-2104-5603, 5602	시흥4동	02-2104-5702, 5703
독산4동	02-2104-5623, 5622	시흥5동	02-2104-5722, 5723
		마을자치과	02-2627-1052



금천구청역 바로 앞에 금천구청이 있어요.
금천구의회, 금천구보건소, 금나래 아트홀,
평생 학습관, 금나래 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이 한곳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②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 위 치 | 금천구 은행나무로 45

☞ 전 화 | ☎ 02-809-8825~8

☞ 홈페이지 | www.goldmaeul.net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Goldmaeul Community Support Center.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to the center, village support center, information, archive, and village products. The main banner features a colorful illustration of a village scene with trees and a sun, and text announcing the 2019 Village Community Award ceremony. Below the banner, there are sections for 'Center News' (센터소식) and 'Village News' (마을소식). The 'Center News' section includes a poster for a book reading event '당신을 찾습니다' (I'm looking for you). The 'Village News' section includes a poster for a flea market and live cafe event, a poster for a basketball game, and a poster for a community meeting. There are also links to 'Small Village Exhibition' (소소한마을전시회) and 'Community Projects' (공동사업).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 · 사람 · 자치 생태계 그물망을 짜다

옛 동산에 올라 동무들과 신나게 놀다가 밥 짓는 연기를 보고 달려오면 집에서는 어머니의 바쁜 손놀림에 맛있는 한 상이 차려집니다.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없이 듣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던 철부지가 자라나 천만 명이 사는 대도시 서울 한복 판에서 매일 문제를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무섭 게 또다시 문제가 밀려옵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문제의 섬 속에서 자포자기와 고독감에 빠져버립니다.

이럴 때면 “이웃이 누구일까? 옆집에 누가 살고 있을까? 나와 연결된 사람은 누구일까?” 하는 생각이 옛날 동무랑 같이 놀던 시절과 함께 떠오릅니다. 내가 사는 문제 많은 도시에 옛 고향 동네의 모습을 살포시 포개어 봅니다.

그랬더니 이웃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나와 이웃의 관계가 형성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의하여 만들어진 마을생태계
2. 삶의 관계를 이어주고 유지해 주는 마을의 숨겨진 약속인 자치
3. 마을생태계 회복과 마을의 약속인 자치를 함께 이어주고 보여주는 활동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며 마을, 사람, 자치의 생태계 그물망을 엮어 보고자 합니다.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손 내밀어 친구 하자고 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함께 해 주실 거죠?



▲은행나무사거리 2분거리에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씨의
사사로운 마을여행

우리 마을에 이사 오셨나요?

금천구는요,
10개동으로 이루어진 서울에서 두 번째로 작은 구 입니다.

작지만 정이 넘치는 금천구에는
새내기마을활동가들이
금천마을지기학교를 통해

소소하지만 함께 떠나 보면 좋을
『사사로운 마을여행』을 소개합니다.



사사로운

형용사
‘사사롭다(公적(公的)이 아닌 개인적인 범위나 관계의 성질이 있다)’의 뜻을 내포함

마을

명사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

여행

일이나 유람을 목적으로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가는 일.
-표준국어대사전 중에서-



『○○씨의 사사로운 마을여행』

우리 마을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마을지기와 함께 한 48시간 아름다운 가치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혜영(좌), 김혜림(우)

마을교육을 통해 만난 시간 : 48시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그 속에 함께 한 마을공간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통해 추억합니다.
마을 여행은 멀리 가지 않고 스스로에게 또는 이웃과 함께
휴식과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바쁘게 지나다니던 길이라도 타인의 관점으로 다시 본다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김혜림 | 나의 삶에 많은 변화를 준 곳이다.

이웃을 알아가는 곳, 소통의 공간,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활동,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김혜영 | 특별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온 나의 삶의 테두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김혜림 | 지금 마을지기를 시작하면 이웃과도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의 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요. 그리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나눔, 배려, 공감할 수 있는 마을활동가 꼭 도전해 보세요.

김혜영 | 이 활동이 어떤 건지 의문이 생겨 옆에 앉은 누군가와 이야기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런 작은 연결지점 또한 이 활동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금천구



마을지기6기 김혜영
김혜림

금천구의 유래

삼국시대 초기 백제가 다스린 것으로 추정하는 이곳은 4세기 말부터 고구려의 지배를 받으면서 잉벌노현(仍伐奴縣)으로 불렸다. ‘뽀어나가는 땅’ 또는 ‘너른 들’이란 뜻이다. 삼국 통일 후 경덕왕 16년(757년)에 행정구역을 정비하면서 곡양현(穀壤縣)으로 개명하는데, ‘비옥한 땅’이라는 뜻이다.

고려 태조 왕건은 940년 이를 다시 금주(衿州)로 개칭한다. 이 일대가 ‘옷깃 금(衿)’자와 인연을 맺은 시초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정조 19년(1795년) 시흥현(始興縣)으로 변경되기까지 이곳은 태종이 1413년에 하명한 금천현(衿川縣)으로 불렸다. 고려와 조선조 전반 등 무려 800여 년 동안 쓰던 ‘금(衿)’자가 분구로 부활한 셈이다.

금천은 “하이얀 옷깃 같은 냇물이 흐르던”이라고 한 미당(未堂) 서정주(徐廷柱)의 ‘금천 예찬’에서 보듯 안양천을 말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옷깃 금’자에 숨겨놓은 조상의 예지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 연대 이곳은 섬유·봉제 등 의류 공장이 즐비한 공단이었다. 우리의 나이 어린 오누이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수출용 의류를 한 땀 한 땀 직조하던 삶의 현장이던 곳이기도 했다.

시흥동 역사문화길

1시간 가량 역사의 발자취를 따라 시흥동의 구석구석을 걷는 이 코스는 시작 전 핸드폰 지도 어플을 설치하기를 추천합니다. 첫걸음을 방지해주는 것은 기본이고 마치 보물지도를 따라 모험을 떠나는 기분마저 들게 해 주는데요 자, 지도 어플을 설치했다면 이제 역사의 보물들을 찾아 떠나봅시다.

시흥행궁

조선시대 정조는 효자로 유명하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후 문헌 무덤이 풍수지리상으로 좋지 않음을 깨달은 정조는 조선 최고의 명당으로 꼽히는 수원부 화산으로 묘를 옮기고 이를 '현릉원顯陵園'이라 명하였고, 그 때 정조가 한양에서 수원으로 향하는 길에 하룻밤 머물기 위해 세운 별궁이 '시흥행궁'입니다.

행궁의 모습을 현재는 볼 수 없지만 800년 이상된 은행나무 세 그루가 그 터를 지키며 묵묵히 세월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800년이라는 세월을 깊게 삼키고 있는 은행나무 앞에 서서 정조가 이 곳에 머물며 아버지를 그리웠을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은행나무의 기운을 받아 다음 목적지 '시흥4동 169-53번지' <단군전 터>로 발걸음을 이동 해 봅니다.



행궁이란?

임금이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 임시로 머물던 별궁

단군전터

대한제국기에 궁중 요리를 전문으로 한 최초의 조선 요리집 '명월관'이라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그 식당의 주인 '안순환'이 일제치하였던 1930년 민족정신과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사비를 털어 세운 곳이 '단군전' 이랍니다.

'단군전'에서는 단군의 그림을 모시고 매년 봄, 가을에 제사를 지냈지만 일제의 극심한 탄압에 1936년 땅에 묻혀 폐쇄되고 맙니다.

6.25전쟁 후 지역주민들은 이 '단군전'을 복구하기위해 노력하였으나 1981년 토지소유권에 휘말린'단군전'은 결국 허물리게 되었고 현재는 연립주택에 붙어있는 표식과 놀이터에 명칭으로 그 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강희맹 살던 곳

동네의 언덕을 따라 올라가 만난 건물 기둥에 작게 붙어있는 표식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긴 하나, 일제에게 몸은 빼앗겼어도 영혼만큼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던 우리 선조들의 정신을 기리며 묵념 해 봅니다.

이 곳에서 '시흥동 807-14호'를 입력하고 300보 정도 걸으면 동도슈퍼 건너편에 위치한 <강희맹 살던 곳>에 도착합니다. 세종에서 성종대까지 문병(文柄)을 장악했던 학자 '서거정'과 함께 쌍벽을 이룬 조선 전기의 문장가 '강희맹'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명문장가 사마천, 한유, 유종원, 구양수에 비유될 만큼 뛰어난 문장가였고 정치가로서도 노련하였습니다.

국가와 왕실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공신'에 3차례나 책봉되었고 왕의 총애와 신임속에 여러 관직을 거쳐 종1품인'좌천성'에도 올랐던 인물입니다. 또한 강희맹은 농서 '금양잡록'을 저술하였는데 이 농서는 조선초기 경기도 일대의 농업환경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합니다.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

이 곳에서 가까운 곳에 서울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순흥안씨 양도공파 묘역>이 있는데요.

이 곳에는 조선 개국공신인 순흥안씨 안경공과 아들, 손자에 이르는 3대의 묘가 안치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묘역 자리는 태조 이성계가 묻힐 곳이었으나 안경공이 먼저 눈을 감으며 이 곳에 묻혔다고 하니 풍수지리가 얼마나 좋은지 가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묘역의 기운과 풍경이 깊고도 단단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이 묘역의 묘와 석물들의 보존상태가 좋아 조선 전기 분묘 형식과 묘제의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걸어와 고개를 둘러보면 호암산이 보이는데 이 호암산 역시 조선 개국에 큰 역할을 한 역사가 있으니 시흥동이 역사적으로 꽤 중요한 지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묘역에서 '시흥동230-40' 을 검색하고 2,000보 정도 걸어가면 <3층석탑 향나무>를 만날 수 있습니다.



3층석탑 향나무

골목을 따라 들어가면 한 눈에 보기에 도범상치 않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거대한 향나무가 우리를 반긴답니다.

500년 이상 된 이 향나무는 은행나무오거리 행궁터의 은행나무들처럼 묵묵히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향나무는 일년에 한 번씩 동네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평온과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낼만큼 중요한 마을의 수호수였으며현재는 시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향나무 그늘 아래에 아담하고 잔잔한 3층석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에 관해 자세한 역사는 없으나 500년 이상된 탑으로 추정되며 구술기록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아낙네가 이 탑에 정성들여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향나무 아래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범일운수종점 정거장' 을 향해 300보 정도 걸어 내려가면 버스종점 건너편에 이 코스의 종착지인 <시흥향교 터> 가 있다.



시흥향교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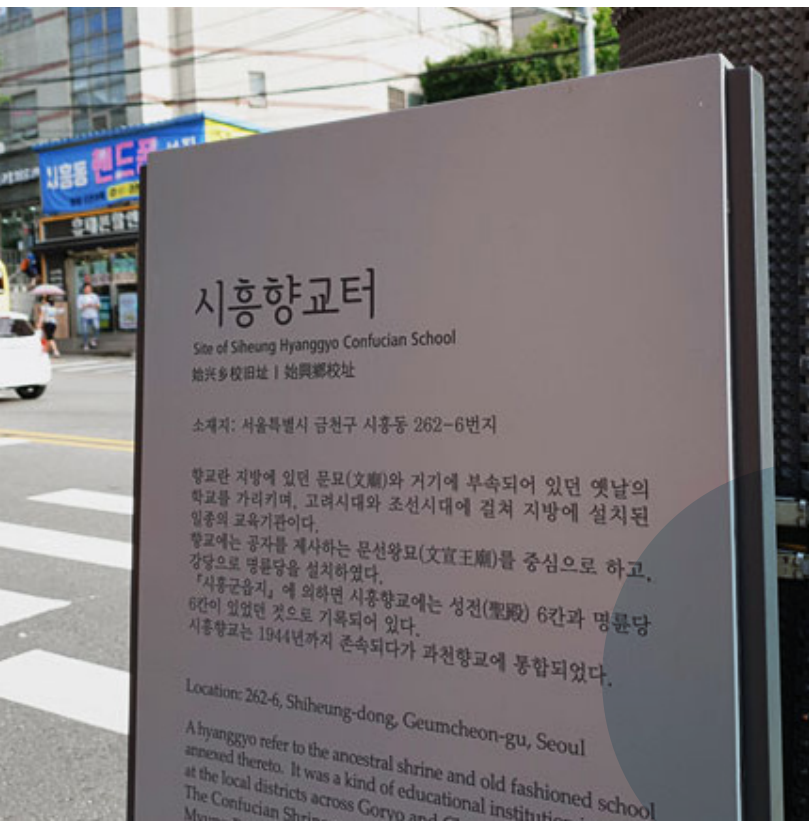
모두 알다시피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당시 시흥을 비롯하여 과천, 안양, 의왕지역의 유생들이 모두 이 시흥향교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재밌는건 이 향교가 근처 관악산에 있는 ‘연주암’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유림들의 행패가 심하던 시기에 스님들이 이 앞을 지나며 마음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1944년 일제가 시흥향교를 과천향교에 통합시키며 지금은 그 흔적을 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 이 곳에 울려 퍼졌을 유생들의 글 소리를 잠시 떠올려 봅니다.

지도를 따라 시흥동 구석구석에 숨겨져 보물들을 찾아 걷고 이 길의 끝에 서면 문득 우리 선조들의 역사에 감사함이 느껴지는데요.

조선을 개국하기 위해, 선왕을 기리기 위해, 조선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리고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살아가던 선조들의 역사, 그 역사가 있었기에 그 흔적 따라 걷는 오늘의 우리들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은 만큼 우리가 역사에 더 가까워지기를, 그리고 선조들이 꿈꾸던 이 땅의 미래에 더 가까워지기를 바래 봅니다. 새로 이사 오신 여러분도 함께 걷기를 소망 해 봅니다



참고사이트

금천구청

<https://www.geumcheon.go.kr/portal/contents.do?key=959>

마을여행

230

호암산 역사문화길

전설과 역사의 흔적을 직접 보고 느끼며 마음을 채우고, 그걸만큼 건강도 채워지는 <호암산 역사문화길>을 추천 합니다.

마을버스 금천01를 타고 ‘호암사 입구’ 정거장에서 내려도 좋고, 준비운동 삼아 많이 걷고 싶다면 ‘벽산아파트 5단지’등산로 입구부터 걸어 올라와도 좋습니다. 호암산 덕분인지 이곳이 서울임을 잠시 잊게 해 줄 만큼 공기가 좋습니다.

그 신선한 공기에 취해 걷다 보면 서서히 높아지는 길만큼 촉촉하게 땀이 맺히는데요.

호암사에 올라 서울아래를 둘러 보시고 충분히 쉬었다면 <한우물>이라 적힌 표지판의 방향을 따라 발걸음을 옮겨 봅니다.

바람에 스치는 나무들의 소리만큼 숨을 몰아쉬는 등산객들이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는데요.

이 구간이 힘들긴하지만 <호암산 역사문화길>의 마지막 오르막 길이며 곧 만나게 될 정상 의 경관과 바람이 모든 것을 보상해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보자구요.

호암사의 전설

“또 무너졌구나.”

태조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하며 한양에 궁궐을 세우려 했으나 그 궁궐이 밤마다 무너졌다.

전국의 장인들이 모였음에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깊은 어둠 속에서 반은 호랑이, 반은 알 수 없는 형체의 괴물이 나타났다.

태조의 군사들은 화살을 쏘지만 그 괴물은 화살을 아무리 맞아도 끄떡없이 궁궐을 무너뜨리고 사라졌다. 그 날 밤, 침실에 들어선 태조는 절망했다.

“한양은 내가 도읍할 곳이 아닌가보다..”

그 때 태조 방밖에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양은 비할 데 없이 좋은 도읍지입니다.”

깜짝 놀란 태조가 밖으로 나가보니 달빛아래 흰수염의 노인이 서있었다.

그 노인은 한강 남쪽의 한 산봉우리를 가리켰는데, 그 산봉우리는 궁궐을 무너트리던 괴물 호랑이의 머리를 하고 한양을 굽어보고 있었다.

“호랑이의 약점은 꼬리이니 저 산봉우리의 꼬리부분에 절을 지으면 만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태조는 그 곳에 절을 짓기 시작했고 그 절을 호암사(虎壓寺)라고 명하였다.

호암산은 갈림길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혹시나 어디로 가야할지 확신이 없다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 등산객분들에게 길을 물어보세요. 근거 없는 확신은 뜻밖의 여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깐요.



정상에 오르면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서울의 모습이 한 눈에 들어 옵니다

그 경관과 시원함은 여기까지 올라오며 흘린땀을 충분히 보상해준 답니다. 숲의 나무들처럼 촘촘하게 모여있는 서울의 건물들을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여유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서울이 한 눈에 들어오는 이런 조망 덕분에 이 곳에 <호암산성>을 지었나봅니다. <호암산성>은 통일신라 때 건축된 성으로서 산의 정상부를 둘러가며 쌓은 테피식 건축형식으로 1,547m의 둘레 중 300m 정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능선 길과 바위들을 넘어 <한우물>에 다다를 쯤 <석구상>이 우리를 반겨줍니다.

태조의 한양 도읍을 방해하던 두 기운이 있었는데 첫째는 앞서 말한 호암산의 호랑이 기운이고, 둘째는 관악산의 불의 기운이었다. 호랑이의 기운을 <호암사>가 잡았다면 불의 기운을 잡은 것이 <석구상>이다. 또한 이 석구상이 경복궁의 해태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둘이 함께 서울의 화재 또한 막는 의미라고하니 참 흥미롭습니다.

이 근처에 <한우물>이 있습니다

가뭄 때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시에는 군용수로 사용되었다는 이 한우물은 산 정상에 있으면서도 물의 양이 변함이 없고 항상 맑은 상태로 고여있다고 합니다. 한우물의 맑은 물이 품은 하늘을 보면 그 고요함과 평안함에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되고, 여기서부터 이어지는 내리막 길을 따라 15분 정도 내려오면 칼자루를 옆으로 누어 놓은 듯한 <칼바위>와 함께 서울의 풍경이 보인다. 호랑이 기운과 불의 기운을 잡아주는 '호암사'와 '석구상'을 보고 와서일까, 이 칼날 같은 바위가 든든하게 서울을 지켜주는 기분도 듭니다.



패션-IT문화길

대한민국 경제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패션-IT문화길> 마을여행으로 초대합니다.

계속 길을 내려가다보면 서서히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 입구 앞에 '건강에 좋은 약수터' 3위를 차지한 <호천약수터>가 있습니다. 높은 칼슘과 미네랄을 자랑하는 약수이니만큼 이 곳에 들러 약수 한 잔 마시며 이 코스의 여정을 마무리 해 봅니다. 건강도 챙기고 역사와 문화의길로 마을여행 어떠셨어요?



우리 민족의 큰 아픈 역사,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전쟁. 그 후 우리나라는 회복이 불가능 해 보일만큼 꺾여졌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허허벌판이던 구로에 산업단지가 들어섰고 그 곳에 11만 4천여명의 근로자들의 땀방울과 청춘이 모였고, 이내 구

로공업단지는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주도한 '한강의 기적'의 중심이 되었다. '한강의 기적'을 선도한 구로공단은 이제 패션과 IT의 중심으로 탈바꿈하여 또 다른 기적의 시대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디지털단지 오거리>에서 시작합니다.

1985년, 대한민국의 최초의 노동자 연대투쟁이었던 '구로동맹파업'이 있었다. 구로지역의 노조들이 노조운동탄압에 맞서 벌인 동맹파업으로서 2,500명이 연대할 정도로 그 규모가 컸었고, 그 파업의 현장이 '가리봉 오거리'로 불리던 <디지털단지 오거리>입니다.

언젠가 이 거리에 가득했을 노동자들의 외침과 함성을 잠시 떠올려봅니다.



이 거리에서 두리번 거리면 고급스러워 보이는 건물들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그 곳이 <패션아울렛>입니다.

이 곳은 현대아울렛, W몰, 그리고 마리오 아울렛 등 3개의 거대한 매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규모가 27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옷들을 다 모아둔 듯한 이 곳은 하루를 꼬박 써도 다 구경하기 벅차지 않을까 싶네요.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믿을 만한 쇼핑물로 선정되어서인지 외국인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산업공단이 허허벌판에서 시작해 '한강의 기적'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감한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도전 정신이 이 터에 그대로 남아서일까 2001년 '패션아울렛'이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시기 유명브랜드 상품을 파격적으로 할인해 제 공한 '마리오아울렛'의 도전은 구로공단을 국내 최대의 패션아울렛 단지로 탈바꿈 시켰습니다 파격적 도전만큼이나 당시 역사를 벽돌에 기록으로 남겨놓은 철학은 너무나 가슴뭉클 했습니다.



패션단지에서 이어지는 고가도로를 향해 조금만 걸으면 <수출의 다리>가 나옵니다.

이 다리는 구로공단의 제1단지와 3단지를 연결하는 고가육교로서, 구로공단에서 만들어지던 섬유제품들이 이 다리를 건너 해외로 팔려나갔기에 수출에 큰 기여를 하는 가교라는 의미로 '수출의 다리'라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한국경제의 눈부신 성장을 이끌고 지금도 묵묵히 사람과 차들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는 다리를 보니 문득 고마움이 느껴집니다.

다리와 철도를 원편에 두고 돌아서면 굴뚝 모양의 조형물을 앞세운 '마리오아울렛 3관'이 보입니다.

이 곳은 과거 구로공단의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기 위해 건물 옥상과 입구 앞쪽에 굴뚝 조형물을 설치하였고 외벽에는 구로공단에 기여한 업체와 인물명을 새겨 넣어 그 가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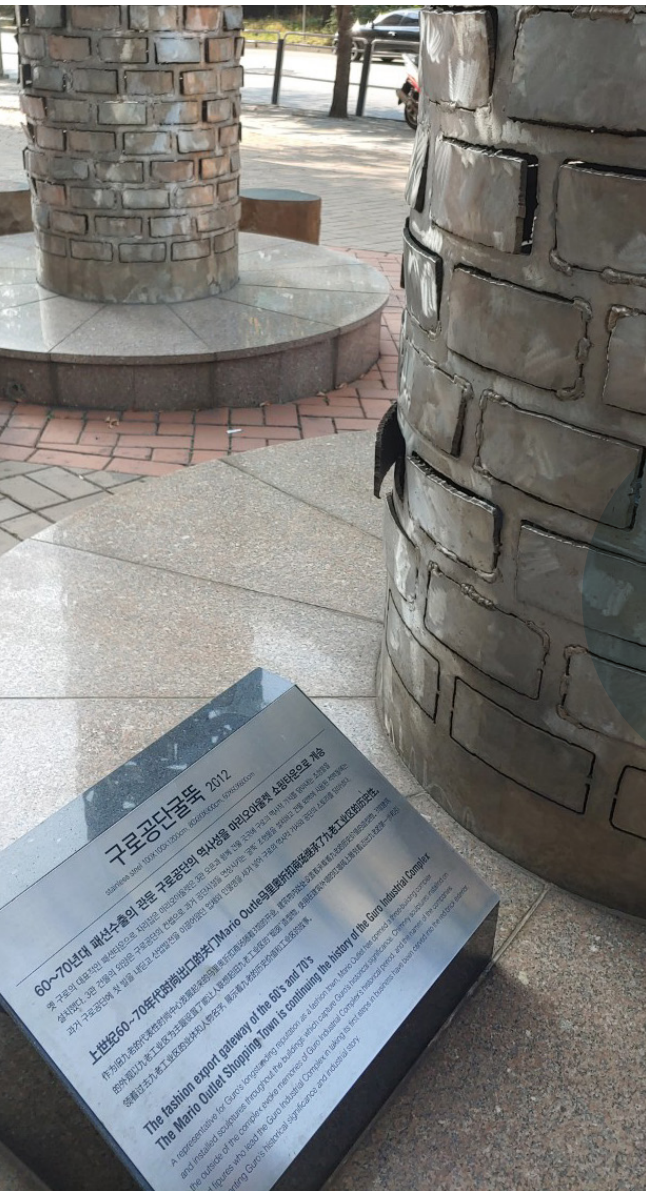
언젠가 '기억에서 사라질 때 비로소 죽는다'는 구절을 본 적이 있는데요. 세상은 무엇을 잃어가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 속에 이런 정성과 흔적을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리오아울렛 3관’ 사이로 나오면 푸른 창문으로 덮힌 빌딩 숲 사이를 걷게 됩니다.

이 길이 <패션IT문화존> 이죠.

이 길에는 패션아울렛들과 더불어 수 많은 IT회사 건물들이 보이는데요.수 십 년 전 허허벌판이던 이 땅에 이런 빌딩들이 세워질까라 누가 알았을까요? 과거 구로공단의 사진을 보고 이 곳을 걷고 있노라면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을 체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길에도 구로공단을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들이 곳곳에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입니다.



이 길을 따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걸어 골목길 사이로 들어가면 이 코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로공단 노동자생활체험관> 이 나옵니다.

‘닭장집’‘별집’이라고 불릴만큼 작고 촌촌했던 구로공단 노동자들의 생활공간을 재현한 곳인데요.

이 곳에는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에 꽃다운청춘을 다 바친 노동자들의 이모저모를 체험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지하에 있는 ‘쪽방 체험관’이 매우 인상 깊습니다.



낮고 좁은 복도에 허리가 숙여져 처음에는 이 전체가 하나의 방인가 싶었지만 작고 작은 6개의 쪽방이 있었고,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가 앉아보니 이 작은 공간에서 나라와 가족을 위해 청춘을 다 바친 노동자들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체험관에서 나오니 이 코스를 다시 거꾸로 걸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높고 화려한 빌딩 숲을 걸으며 이런 오늘을 위해 그 날에 청춘을 다 바친 세대들에게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볼 수 있는 <패션-IT 문화길>을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치 실천 활동을 함께 했어요

동네한바퀴 마을여행 뿐 아니라 미션지를 통해서 한주한주 나의 활동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을 마주했어요. 어떤 가치들을 새겨 보았는지 함께 읽어 보아요.

(2019-2차) 믿음 :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2019-3차) 존중 : 대상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태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람들에게 대한 친절과 배려, 예의는 알맹이 없는 허식에 불과합니다. 연장자에 대한 존중, 나라와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존중, 사회규칙에 대한 존중, 다른문화권에 대한 존중, 자기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을 존중하기도 어렵습니다.

(2019-4차) 이해심 : 남의 처지와 기분을 헤아려 주는 태도, 합리적인 사고에 바탕한 관용적인 태도.

이해심은 마음나누기와 배려, 이 두 미덕과 맥을 같이하는 미덕인데 마음나누기와 배려가 동정과 연민, 자비에 가까운 심정적인 것이라면 이해심은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한 관용적인 태도입니다.

(2019-5차) 책임 : 자기가 맡은 일이나 임무.

(2019-6차) 배려 :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2019-7차) 자신감 :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알고 있는 마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시에 겸손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기가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마음이고, 겸손함은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과 겸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2019-8차) 공평 :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 평등과 정의, 존중의 개념을 포함.

(2019-9차) 관용 : 상대방이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첫째관용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이웃과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둘째관용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자신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2019-10차) 친절 :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사려깊고 상냥하며 겸손한 것

친절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상황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익힐 수 있는 인사하기부터 좁은길에서 마주오는 사람에게 길을 양보하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친절한 행동입니다.

(2019-11차) 마음나누기 : 말 그대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

상대방이 기쁘면 나도 같이 기쁘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같이 슬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가까운 사람들 뿐 아니라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한 가족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나누기란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에 동정과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종교나 국경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아름다운 가치를 실천하는 ○○○마을지기샘의 성장 일기

가치키워드 관용

상대방이 자기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남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첫째 관용은 '다름'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것을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태도로서, 자기와 다른 모습의 사람들을 이웃과 친구로 만들 수 있게 합니다.

둘째 관용은 잘못이나 실수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자기 자신도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나를 안 좋게 말하는 어떤 친구에 대해 처음엔 이해가 안돼서 내가 왜? 라고 생각했지만... 내 자신이 용서하고 축복해 주니 사이가 좋아지고 있다. 참길 잘했다.

다른 이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과연 나의 실수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고 스스로 반성하며 성숙되어 가는 것이다. 서로의 실수를 너그럽게 바라보며 응원해주자!

가치키워드 공평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서로 공정하게 나누는 것.

평등과 정의, 존중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옷 하나를 잘라서 둘로 나누어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번갈아가며 입을 것을 말합니다. 공평이라는 개념은 그가 누구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혹은 어떻게 생긴 사람이든 공평한 대우, 공평한 몫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인 나는 항상 세 아이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각자의 생각으로 공평하지 않고 다른 형제를 더 많이 챙기고 더 많이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상황에 따라 “첫째니까”, “너는 형인데”, “막내잖아”, “형한테 먼저” 등의 말로 아이들에게 공평치 못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가산동

마을지기6기 진정희



가산동의 유래

가산동의 본디 이름은 가리봉동이다. 1995년 3월 1일 금천구가 구로구에서 분리되면서 가리봉동의 일부는 구로구 관할로, 또 일부는 금천구 관할로 나뉘어져서 금천구 관할지역의 가리봉동 명칭을 가산동으로 바꾸었다.

가산동이라 부르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963년 1월 1일 시흥군 동면 시흥리, 독산리, 가리봉리, 신림리, 봉천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편입하여 관악출산소 관할 아래 두면서 가리봉리와 독산리를 합쳐 가리봉리의 『가』자와 독산리의 『산』자를 따서 행정동 명칭을 가산동이라 했다.

이야기가 있는 가산동 동네한바퀴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진정희



우리 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있는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느새 가산동 주민으로
더 친근하지 않을까요?

여행코스

- ① 가산디지털단지 ②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③ GCAMP, 메이커스페이스 ④ 아울렛 패션거리 ⑤ 가산동 주민센터
⑥ 조마고개 ⑦ 구립가산도서관 ⑧ 장수막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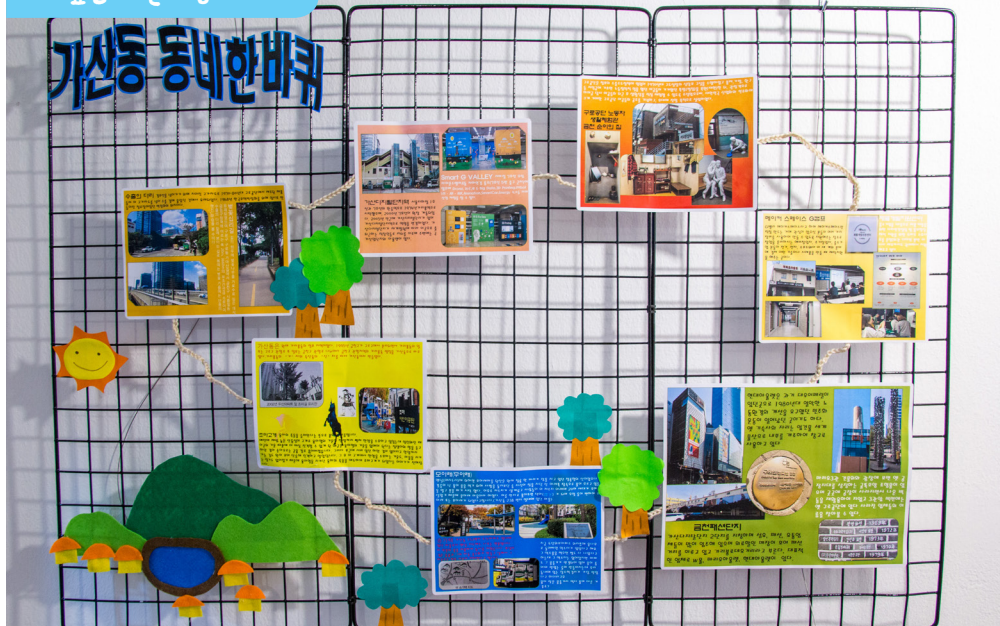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오면 무척 낯설고
뭐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럴 때 우리가 전입자에게 우리동네 지도와 함께 마을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직접 마을 곳곳을 걸어 찾아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줌으로써
우리마을에 무엇이 있는지, 왜 있는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
어느새 가산동 주민으로 친숙하게 속 들어와 있는 않을까요?

나에게 마을이란?

낯선 곳에서 얻은 마음의 고향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을지기 교육을 꾸준히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금천구민으로, 마을지기 일원이 되어 깊숙하게 들어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과정이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사는 곳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이 값진 기회 함께 하는 마을지기들과 많은 추억과 든든한 버팀목을 얻는 기회를 만나시면 좋겠다는
바램을 전합니다.
모두 힘내시고 우리 파이팅해요!



1 가산디지털단지

서울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의 환승역으로 1974년 가리봉역으로 시작했으며, 2000년 7호선이 확장 개통되었다. 2005년 인근에 가산디지털단지가 있어 가산디지털단지지역으로 역명을 변경하였고, 가산디지털단지가 재개발됨에 따라 이곳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로 러쉬를 이루며 주변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아울렛이 있다.



2 구로공단 노동자 생활체험관

구로공단은 정부의 수출주도정책에 힘입어 1970년대 고도성장의 심장부 구실을 수행하였고 봉제, 가발, 완구 등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일을 했던 여공들이 기거했던 쪽방(벌집)을 복원(재현)한 뒤, 관람객으로 하여금 당시 여공들의 퇴근 후 생활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구로공단 여공들의 공로를 기념하고, 후대에 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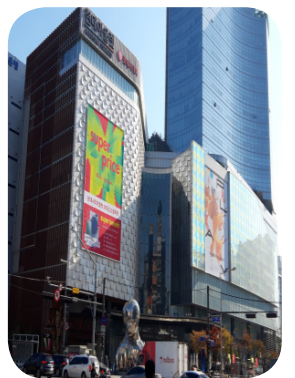
3 G밸리 메이커스스페이스

G밸리 메이커스스페이스라고 하며 메이커스스페이스란 직접 만드는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장소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중소기업 분들이 전기, 전자, 소프트웨어 이 세 개의 분야에 걸쳐 어떤 기술이나 시제품을 만들 때 제작지원을 해주는 곳이다.



4 아울렛 패션거리

가산디지털단지 2단지를 지칭하며 섬유, 패션, 유통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으며 의류할인 매장이 모여 패션거리를 이루고 있고 가리봉로테오거리라고 부르다 현대아울렛은 과거 대우어페럴이 있던곳으로 1980년대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했던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기도 하다. 옛 기숙사의 자리 옆건물은 세계물산으로 내부를 개조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5 가산동 주민센터

6 조마고개

조마고개 용마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전에 제법 높은 산등성이 고개로 용마혈의 기운이 한양까지 뻗쳐 한양을 수호하고 있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곳의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진격할 수 없게 된 왜군은 용마혈의 기운을 없애야 된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하얀 김이 솟아오르는 곳을 칼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부근에 서려 있던 하얀 김이 없어지고 한양까지 가는 길도 환히 보여 단숨에 진격하고 말았답니다. 그 후 이 고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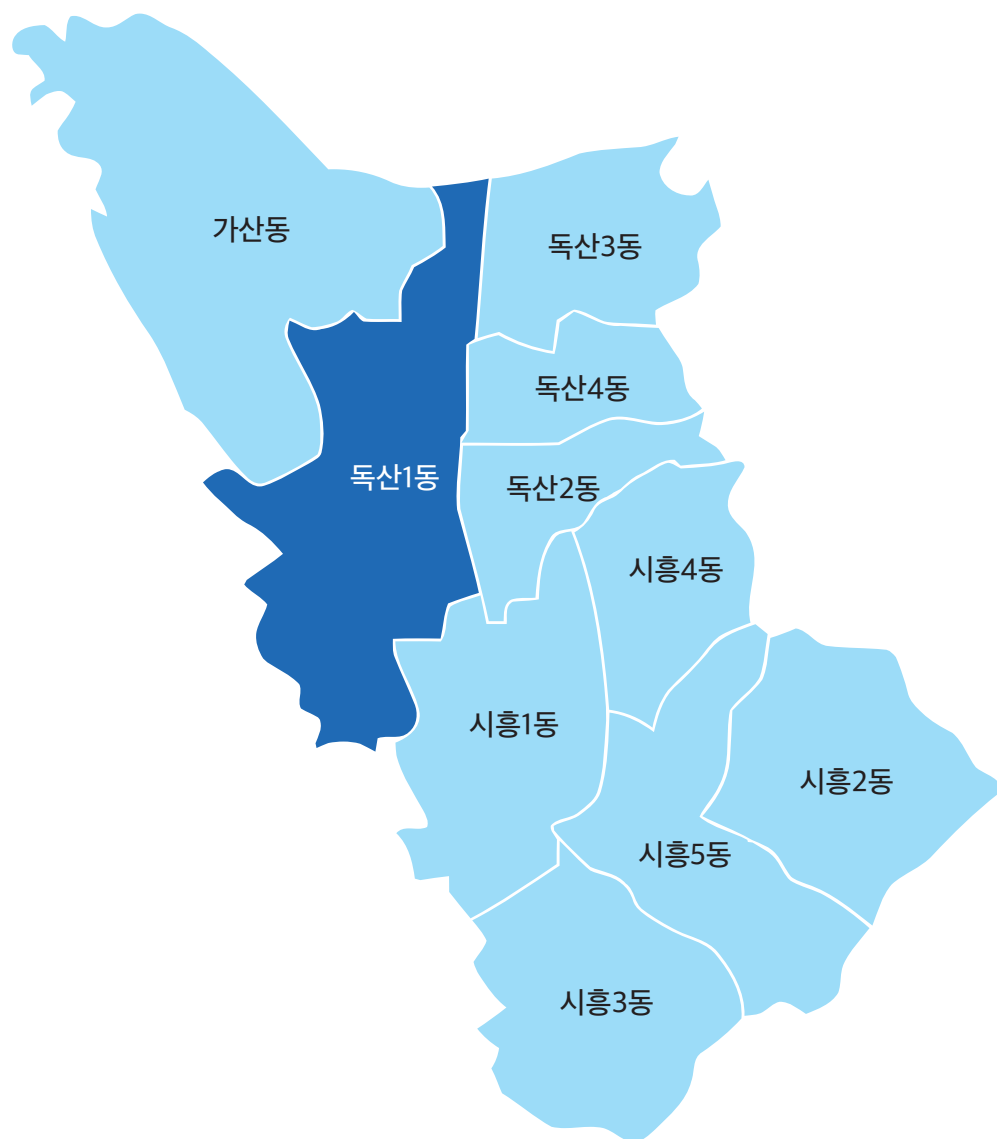
한양을 수호하는 기운도, 마을을 지키는 정기도 없어졌기 때문에 용마혈을 지키던 용마의 죽음을 애도하여 조마고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7 구립가산도서관

8 장수막걸리

지금 두산위브아파트 위치쯤에 옷나무로 둘러싸인 약수터가 있었다고 해요. 그 약수터를 먹으면 병도 다 나았다고 하는데 그 약수터는 없어졌지만 아마도 그 물줄기가 연결되어 있어 물이 좋아야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장수막걸리가 가장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이 찾은 물줄기라 역시 물이 다른 거 같죠?





독산1동

마을지기6기 김은선
진재옥



독산동의 유래

독산동의 독(禿)자는 잘 쓰이지 않는 자이다. 까치머리의 독, 대머리 독자를 사용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명의 유래는 이 마을의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강희(姜曦)의 말에 의하면 “내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벌거숭이 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독산이라 한다.

원래는 나무가 있었으나 한성교외에 있는 까닭에 도끼로 찍히고, 소·염소 따위에서 먹힘을 당하여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했다.

강희는 고려조 강감찬 장군의 후손이며, 비록 그의 생몰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문과에 급제한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사람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독산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부터라 할 수 있다. 또 강희의 본관이 금천(衿川)이며, 호는 독산(禿山)이었다.

독산1동



일상에 지쳐서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걸어 다니던 동네길
아이랑 유모차를 타고 걷는 길에 우연히 내 눈에 들어오는 꽃들..
무슨 꽃들인지 모르겠지만, 예쁘게 피어있는 모습에서
우연히 바라 본 그 꽃길에서 나를 찾는 마을여행을 안내합니다.

여행코스

❶ 독산역 ❷ 안양천 산책로 ❸ 벚꽃십리길 ❹ 금천구청역



엄마랑 꽃구경 갈까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은선

누구와도 함께 해도 좋은 길.
우리 동네 안양천 둘레길을 다니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이야기하면 편안하게 걷는
그 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아이가 강아지풀을 보면서 엄마 이 풀은 멍멍이풀이야 라고 이야기
건네었던 소소한 일상들이 이젠 추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상들을 마을여행을 통해 추억으로 남겨 보세요.

나에게 마을이란?

돌아다니다가 친한 동네 언니, 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 친한 사람들이 내 이웃이고, 마을에 함께 살고 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시작해 보세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그냥 걷는 것과는 다른 일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지요 함께 마을을 알아가는 것이 더 많은 이웃이 되길 바래 봅니다.

더 깊은 마을여행 이야기



1 독산역

독산역에서 2번출구 중앙하이츠 아파트방향쪽으로 걸어오면 육교 옆의 길을 건다가 보면 중간에 이정표 표지판이 나온다. 그 길따라 쪽 걸어가면 된다.

2 안양천 산책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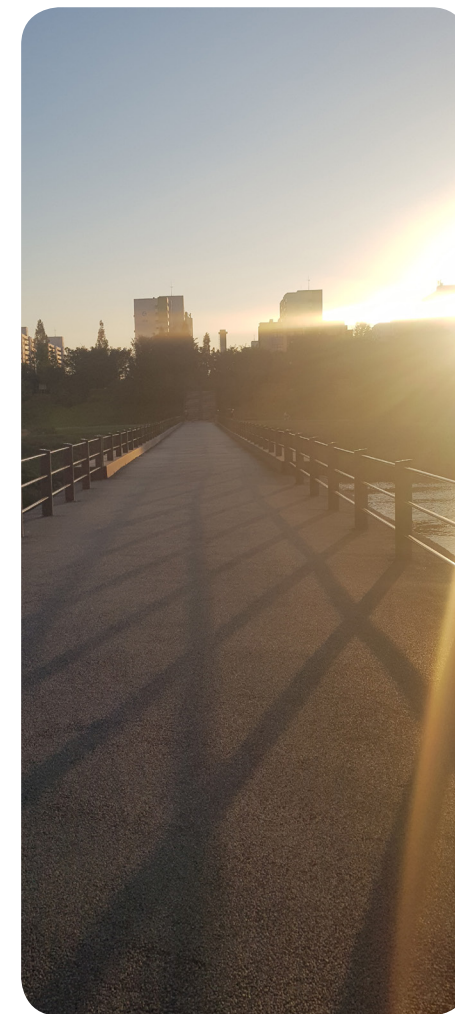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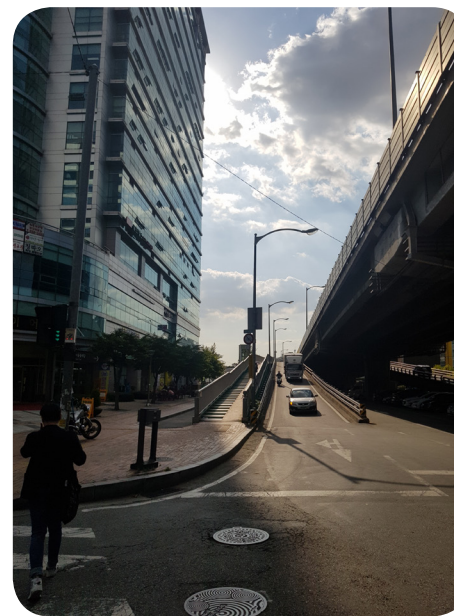
누구라도 좋다.

엄마랑 아이랑 함께 걸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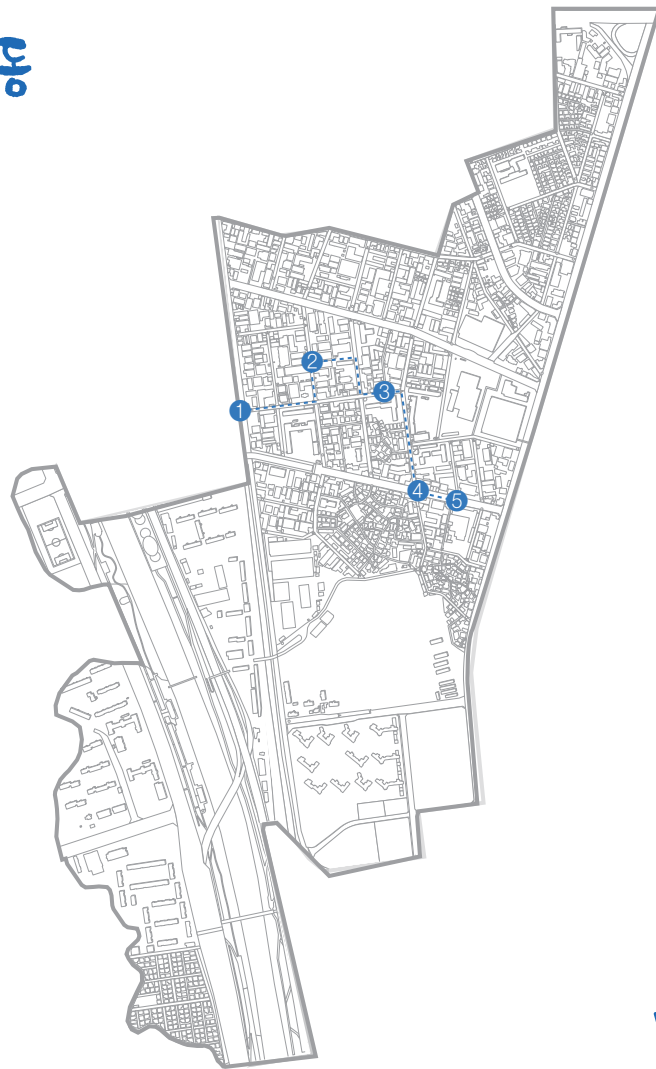
가족이랑 모두 같이 걸어도 좋은길이다.

3 벚꽃 십리길~

4 금천구청역



독산1동



여행코스

- ① 벚꽃십리길(따릉이) ② 금천예술공장 ③ 스트리트뮤지엄 마을탐방로 (진도3차아파트 외벽화단)
④ 우시장 맛독산 ⑤ 우시장 소동상



봄바람 휘날리며~~~ 흘날리는 벚꽃잎이~~~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진재욱

따스한 봄 가족, 친구, 연인들과의 소소한 동네한바퀴 어떠세요?
벚꽃십리길을 걷거나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사하고, 함께 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맛있는 음식과 행복
한 시간을 추억으로 만들고, 운동으로 인한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우리동네 休zone에서 안정감과 소통을 이끄는 마을여행 이후
독산동 우시장 방문을 통해 맛집과 지역상권 살리기까지
1석2조 여행을 안내합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내 삶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고, 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곳.
나의 이웃들이 함께 삶을 살아가는 곳.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생활권인 동네의 개념에 이웃을 더하면 마을이 되는 것 같아요.
마을이 궁금한 당신이라면 마을지기가 되어 보세요.

더 깊은 마을여행 이야기



벚꽃십리길 라이딩(자전거길)을 통해서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에 감사하며, 함께하는 사람과의 유대감을 높이고, 맛있는 음식과 행복한 시간을 추억으로 만드는 우리동네 마을여행 운동으로 건강까지 챙기는 1석2조 마을여행 우시장 방문을 통해 맛집과 지역상권 살리기는 덤 이에요



1 벚꽃십리길(따릉이)

봄이 되면 4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벚꽃대궐로 마을 여행길을 나섭니다. 함께 걸던 아이는 벌써 13살이 되었고, 증조할머니는 이제는 안 계시지만, 여전히 봄이 되면 우리 가족은 벚꽃여행을 떠납니다. 벚꽃은 매년 한결 같이 세월의 흐름과 같이 자라는 기억과 추억이 되어갑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걷는 벚꽃 십리길 놀러 와 보세요.

2 금천예술공장

금천예술공장으로 예술하러 갑니다.

예술가들의 창작공간이지만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전시와 행사들을 통해 예술적 감각도 익히고 마을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릴때부터 마을 속 공간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마도 커가며 마을의 소중함도 알고 받은 만큼 마을로 되돌려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아이로 자라겠지요. 마을 안에는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기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 스트리트 뮤지엄

두산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 마을주민들이 함께 만든 숨, 휴(休)공간을 소개합니다. 버려진 공간에 마을 사람들의 애정과 숨을 불어넣은 곳으로 버려진 조각장이 예술적인 공간으로 탄생한 모두가 함께 만든 작품입니다. 걷다가 잠시 휴식을 느끼고 숨 속에 숨어 있는 이야기를 되새기며 새로움 채워 출발하는 마을여행길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곳입니다.



4 우시장 맛독산

5 우시장 소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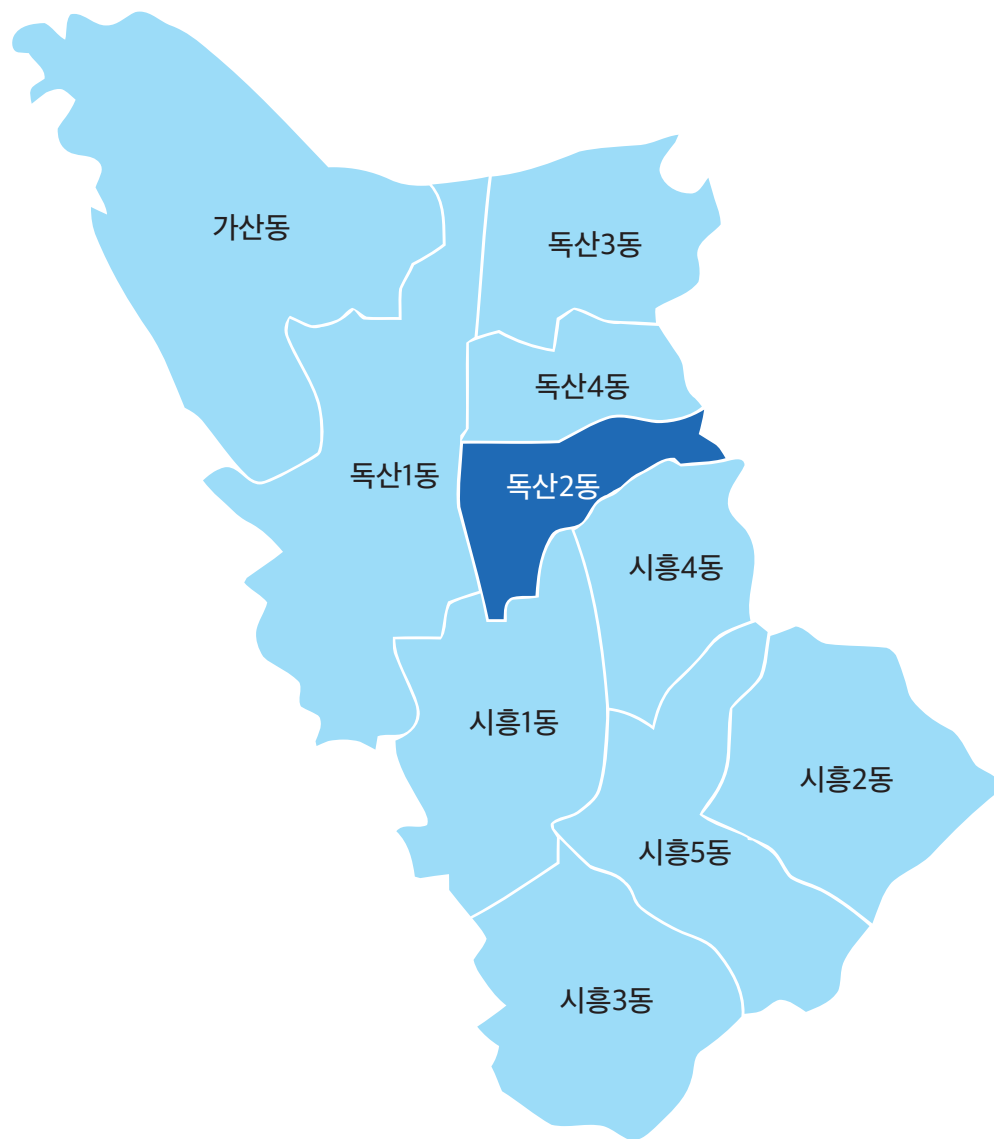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우시장이 있습니다

명절이면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장을 보러 방문하는 곳입니다

어려서는 엄마와 고기사러 갔던 곳이고, 뒷집 뒷집 친구네 부모님의 일터이기도 한 곳이지요. 시장과 더불어 맛집도 많답니다. 골목맛집 한번 찾아보세요.

단골이 되는 맛독산입니다.





독산2동

마을지기6기 김금주



독산동의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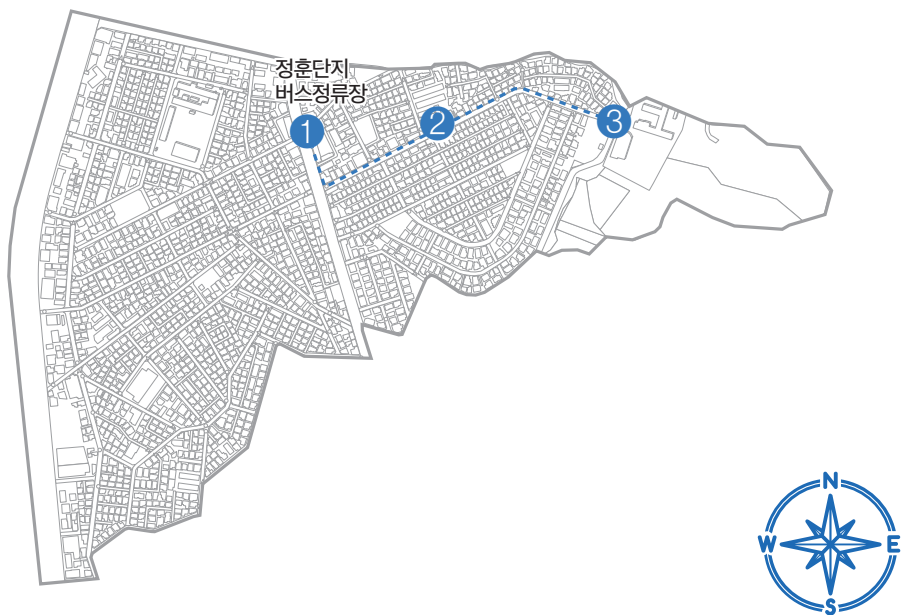
독산동의 독(禿)자는 잘 쓰이지 않는 자이다. 까치머리의 독, 대머리 독자를 사용한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동명의 유래는 이 마을의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강희(姜曦)의 말에 의하면 “내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벌거숭이 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독산이라 한다.

원래는 나무가 있었으나 한성교외에 있는 까닭에 도끼로 찍히고, 소·염소 따위에서 먹힘을 당하여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했다.

강희는 고려조 강감찬 장군의 후손이며, 비록 그의 생몰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문과에 급제한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사람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독산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부터라 할 수 있다. 또 강희의 본관이 금천(衿川)이며, 호는 독산(禿山)이었다.

독산2동



여행코스

① 정훈단지버스정류장 ② 정훈상가길 ③ 정훈 언덕길

이렇게 다양한 상가들도 있고 그 사이사이 언덕길로 주택들이 있는데 맛난 간식도 먹고, 운동 삼아 천천히 언덕길을 걸으며 못 다한 이야기 꽃 들을 피워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한번, 지붕한번 언덕길2번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금주

서서히 사라져가는 주택들과 작은 정원들 이제는 신축빌라가 지어지고 앞마당에 있던 감나무 대추나무들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아기자기한 주택들이 있고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평범한 마을이지만 여유로운 마음으로 언덕길을 오르다보면 그 속에서 그들의 삶이 있을 것이고 나의 삶도 되짚어보게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인생살이에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듯이 올라 갈 때는 주변 경치가 잘 보이지않지만 내리막에서는 여유로운 마음과 주변을 자세히 관찰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지요.

독산2동의 언덕길을 걸으면서 아기자기한 집들을 보며 진정한 나를 발견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현실을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에 조금은 답답해지지만 항상 다른 모습으로 나를 반기는 하늘을 한번 올려 다 보세요.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살며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길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마을이란?

어느 때는 우두커니 서서 짝사랑을 바라보듯 하염없이 그 자리에 나를 잡아 두기도하고 집집마다 세어 나오는 소리에 나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 짓게 만들고 여기저기 식사 시간이 되면 맛있는 음식 냄새들이 발길을 재촉 하게 되고 나무, 전봇대, 담장에 앉아서 지저귀는 새소리에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독산2동 언덕길 동네는 나에 모든 감각을 자극시켜주는 오감 북 같은 동네이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부담 없이 살며시 나오시면 '생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 속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함께 할 때가 가장 행복해 지는 것 같아요. 마을이라는 곳에서 만나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미션] 아래 사진장소와
똑같은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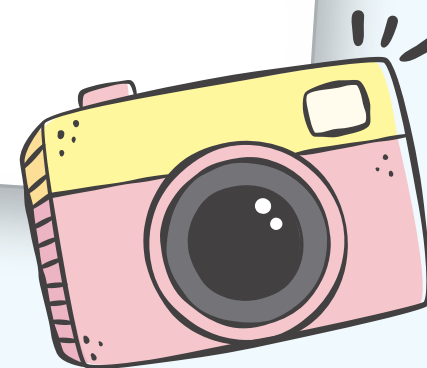
여기는 독산2동 정훈단지, 여기는 언덕 골목길과 정겨운 상가, 주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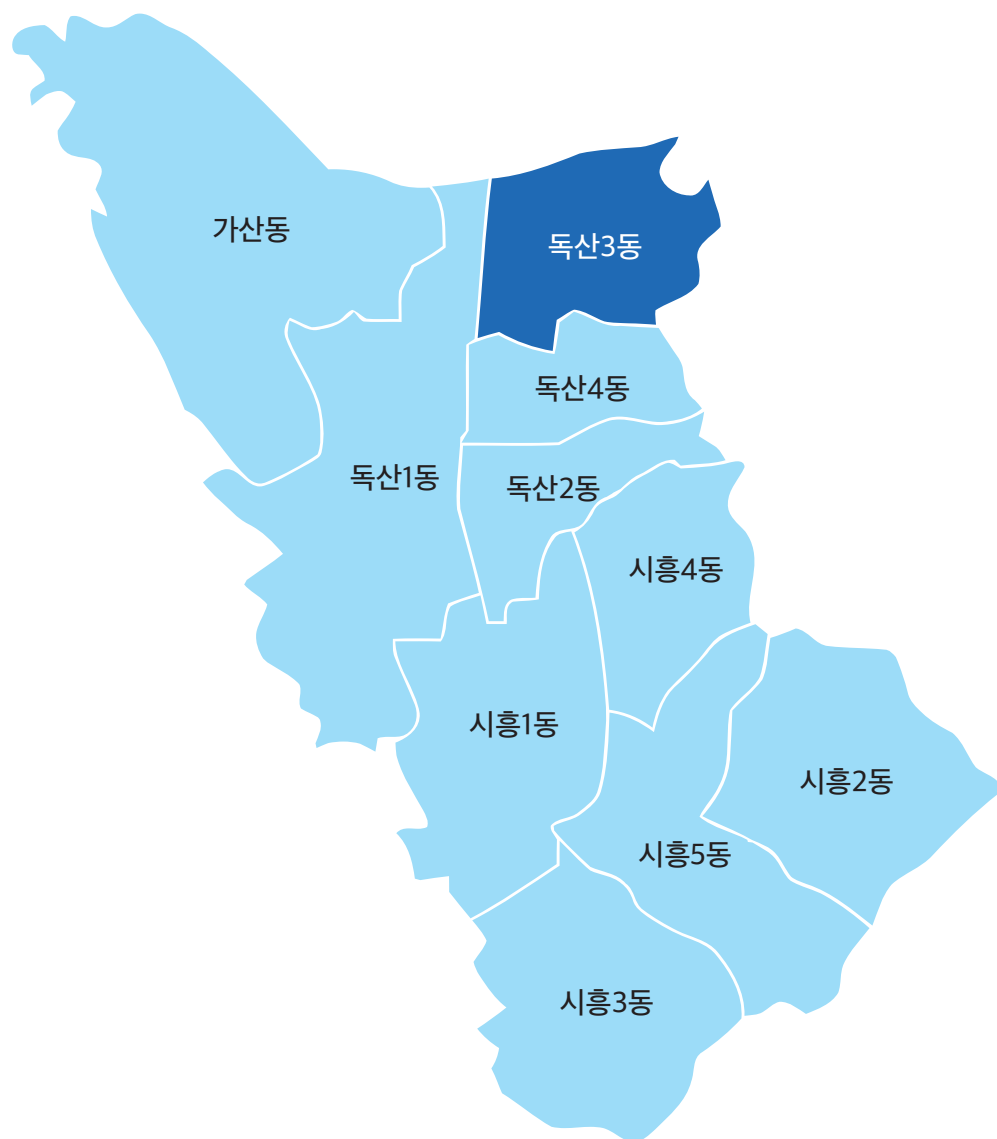
상가골목길로 형성 되어 있는 길을 걸으면서 오래되고 개성 있는 상점들을 관찰하고 인증 샷 미션도 해보고 아기자기한 골목길 언덕에 숨어있는 장소를 찾아 기념 촬영 미션까지 해보는 짧지만 재밌는 거리로 소개하고 싶어요.

① 정훈단지 버스정류장

② 정훈상가길

③ 정훈 언덕길





독산3동

| 마을지기6기 김순희
윤성일
허희재



독산동의 유래

독산동의 독(禿)자는 잘 쓰이지 않는 자이다. 까치머리의 독, 대머리 독자를 사용한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이 동명의 유래는 이 마을의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강희(姜曦)의 말에 의하면 “내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벌거숭이 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독산이라 한다.

원래는 나무가 있었으나 한성교외에 있는 까닭에 도끼로 찍히고, 소·염소 따위에서 먹힘을 당하여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했다.

강희는 고려조 강감찬 장군의 후손이며, 비록 그의 생몰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문과에 급제한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사람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독산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부터라 할 수 있다. 또 강희의 본관이 금천(衿川)이며, 호는 독산(禿山)이었다.

독산3동



여행코스

- ❶ 별빛 남문시장
- ❷ 고서액자전시길
- ❸ 만수천 약수터 (생태공원)



우리마을로 소풍가는길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순희(좌), 허희재(우)

먼 곳에 가지 않더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서
남녀노소 누구나 마을로 소풍갈 수 있는 우리 독산3동,
마을에 있는 시장을 구경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들고 자연과 함께
마음의 힐링을 할 수 있는 마을여행 함께 떠나 보실래요?

나에게 마을이란?

김순희 | 동네 마실 가서 사랑방에 앉아 있듯이 답소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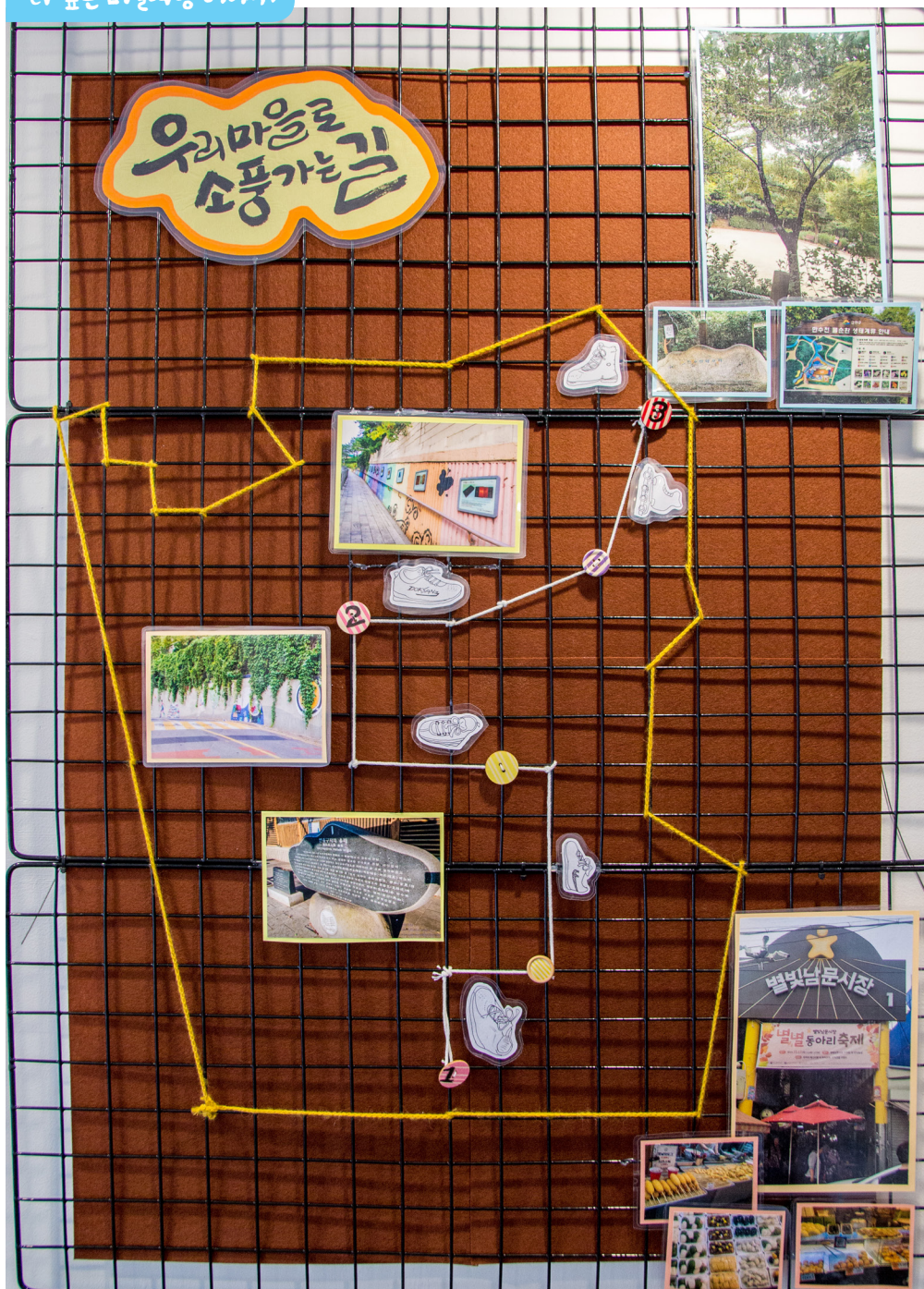
허희재 | 나를 있게 하고 변화시킨 곳이다.

어릴 적부터 자란 마을에 다시 돌아와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김순희 | 알차고 짙 차게 꾸며진 교육 과정 안에서 이웃 마을의 마을지기 썸들을 만나 추억도 쌓고 따뜻한 마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을지기 교육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허희재 | 마을을 배우는 과정이 녹록지 않지만 나에 대해, 서로에 대해 알게 되는 시간일 거예요. 의미 있는 결과가 기다리고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해보세요. 응원합니다!



1 별빛남문시장

초등학교 과정중에 2학년은 우리동네 둘러보기, 3학년은 마을역사나 유물에 관한 견학을 하기도 하고 개별 탐방을 하고 리포트를 써내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유적지에 가서 인증사진 찍고 인터넷으로 찾아본 자료조사를 수집해서 제출하는게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동네 마을해설사에게 곳곳의 설명을 들으며 마을에 대해서 재미있고 정확하게 알고 별빛 남문 시장에서 점심을 먹는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면 어떨까요.



2 고서역자 전시길

독산3동을 문화마을로 가꾸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과 결실을 알게 되는 여행길입니다.



3 만수천 악수터(생태공원)



독산3동



여행코스

- ① 안녕 정든 나의 집 ② 독산동교회 ③ 만물상
- ④ 모두의 학교 ⑤ 목화놀이터 ⑥ 꿈꾸는 나무
- ⑦ 산기슭입구, 고서액자전시길 ⑧ 금천 생활속 창의공작플라자(고양이 쉼터)
- ⑨ 숲입구(등산로) ⑩ 미사화장품공장옛터



사사로운 행복의 길을 따라 마을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윤성일

당신은 하루에 하늘을 얼마나 바라보나요?
길에 핀 작은 들꽃을 자세히 바라본적 있나요?
너무 작아 눈에 잘 띄지않던 작은 들꽃이 얼마나 섬세하고 귀여운지..
피어오르는 꽃망울은 또 얼마나 애뜻하고 신비한지..
일상에서 벗어나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 주위를 둘러보세요..
평소엔 알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 질 거예요..
너무 일상적이고 작아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들이 어느 누군가에겐
큰 행복이 될수 있잖아요. 작은것..그 소소한 행복..그로인한 감사함..
낡고 오래된 기억, 삶, 풍경, 사람.. 작은 것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죠..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느껴 보세요..
그리고 잊고 있던 나의 내면을 들여다 보세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나에게 마을이란?

나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감싸주는 더 큰 울타리, 함께 행복해야 할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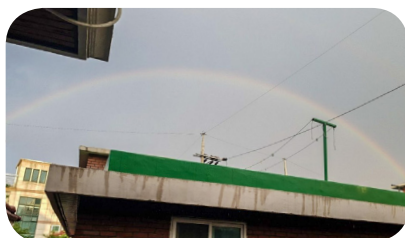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을안에서 "내가" 나 "제가"가 아닌 우리가 될 때 그 사랑이 진정 빛난다는걸 다시 한번 더 깊이 되새길수 있었습니다. 설레임과 희망으로 시작해서 많은 감정들을 겪으며 세상과 사람에 대해 더 깊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하게 되는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우리 마을에 사랑이 더 가득해지길 소망합니다.



① 안녕 정든 나의집

참 많은 변화가 있었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나의집이다. 기다랗게 높은 계단과 봄이면 마당에 핑크빛 모과꽃이 피고 가을이면 모과열매, 대추열매를 내어주는 나무가 있는 곳.. 3층 현관문을 열면 바로 앞으로 해와, 달과, 무지개가 뜨던 정든 나의집.. 이제 곧 정든 이집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문앞으로 떠났던 해와 달과 별들이 무지개야 안녕~~~



② 나의 교회 독산동교회

나의 교회 독산동교회이다. 내가 집외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곳 인것 같다. 오래된 이곳은 양옆건물들과 반대쪽에 주차장을 가지고있다.. 머지않아 곧 크게 증축할 것이다. 그땐 이 모습이 사라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을까?



③ 정겨운 이름을 가진 상가들 (만물상, 선물화장품, 성가약국)

고소한 참기를 냄새 방앗간은 언제 지나도 정겨운 향기가 있는 곳이다.

그 옆으로 만물상이 있다. 오래된 이가 빠진 빗자루 그 오랜 세월 동안 매일 아침 가게앞 청소를 하셨을 주인아저씨의 모습이 상상된다. 만물상옆에는 선물화장품인 가게가 있다. 어릴적 엄마손잡고 따라 들어간 곳, 어릴적 엄마의 분냄새가 생각난다. 바로 그 옆 건물 모퉁이에 성가약국이었다. 갑자기 급할때 찾아가기 좋은 작고 오래된 골목약국이다. 이주머니에선 항상 바쁘시다. 오늘도 가게를 비우셨구나 (약을 사러는데 안계시다면 크게 '계세요'를 외쳐 보세요)!!



④ 모두의 학교

평생학습 교육기관인 주민 배움터 모두의 학교는 다양한 참여형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검색을 추천한다.

모두의 학교 | <http://smile.seoul.kr/moduschool>



⑤ 목화놀이터

의자가 많아 쉬어가기도 좋은 목화놀이터에는 지치지 않고 뛰노는 아이들과 아장아장아기와 엄마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옹기종기 모여 앉아 한참 이야기꽃을 피우고 계신 곳이다.



⑥ 꿈꾸는 나무(청소년 휴카페)

청소년 아이들의 실내 쉼 공간 꿈꾸는 나무가 있다 다양한 프로그램운영은 검색을 추천한다.

⑦ 산기슭입구, 고서책자전시언덕길

이사간다고 아쉬워할 틈없이 독산3동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 글을 쓰다보니 설렌다. 나에게 여유로움을 주고 사색에 잠기게 하는 그런곳 산기슭길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있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나의 힐링장소이다. 물론 참부터 그랬던 아니었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종교가 없던 나는 1년동안 집안에서 성경책을 읽었다. 그렇게 나를 단련한 후 마치 알을 깨고 나온 것 마냥 내 자신이 변화되려 할 때 쯤.. 세상의 아름다움을 처음 마주했던 곳.. 그곳이 산기슭길이다. 그래서 내겐 더욱 특별한 장소가 되었다. 이제 곧 산기슭길이 시작되는 장소로 이사를 오게 되니..내가 좋아하는 이길을 더 자주 거닐며 삶의 여유와 휴식을 느껴 볼 수 있겠다. 힐링이 되고 계절의 낭만이 함께하는 그 길.. 내겐 북한산 둘레길이 부럽지 않은 산기슭길. 고서책자길 찬찬히 읽어보며 올라 가 보자.. 우리 역사에 관련된 고서들과 설명들이 담긴 액자이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벽면 액자에 고서책 제목 중그 이름과 같은 이름의 지인이 바로 몇걸음 거리에 살고 있으니 지날때마다 그 언니가 생각 날 수 밖에 없다. 언덕에 이런 멋진 액자들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 인것 같다. 그만큼 천천히 걷기 좋은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곳엔 참으로 계절의 아름다움이 있다.

봄에는 핑크빛 벚꽃길..

여름엔 푸르름이 가득한 길..

가을엔 단풍이 환상적이고, 한겨울 눈이 내린 날에는 겨울왕국이 따로 없다.



⑧ 금천창의공작프라자

공터 빈 수풀공간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양이들이 자리잡고 있다. 서열이 있는듯 고양이 몇마리가 순서대로 돌아가며 무언가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근데 요근래에는 잘안보인다..예들아 너네들 모두 어디갔니??

어쩌면 예전만큼 자주 지나 다니지 않아 못봤을지도 모르겠다. 이곳 옆으로는 금천창의공작프라자가 있다. 이곳에선 미리 신청해서 무언가 만들기도 할수 있다니 이곳도 검색해보길 추천한다.

이곳 낮은 파란벽에는 별자리그림과 별들이 그려져있다. 언젠가 이길을 지날때 학생들이 모여 별을찍고 있었다. 나도 어떨결에 별하나 찍고 지나갔다.

사수자리 근방에 있는 별 하나는 나의별이다. 야광별이더니 요샌 발광이 안되는 듯하여 아쉽다.



⑨ 숲입구(등산로), 만수천공원

산으로 들어 가 보자. 안내간판이있고 입구바로 운동기구와 쉼터가 있다. 한 발짝 더 들어왔다고 공기의 상쾌함이 배가된다. 새소리와 풀벌레 소리 바람소리가 들린다. 잠시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자연을 느껴보자.. 편안하다.. 조금 걷다보면 미니슈퍼라는 진짜 미니미니한 슈퍼가 나온다.. 음료수하나 시원하게 마시고 가볼까? 마음씨좋은 주인아주머니께 선 자상한 표정으로 잘지냈냐며 안부를 물어오신다. 정겨운 동네 이웃들이다.



⑩ 미사화장품 옛공장터

골목길로 쭉 내려오다 보면 미사화장품공장터가 있었다. 미사가 뜨기 전까지 있던 장소였다. 그땐 바로 집 옆이라고 종종 우체통함에 샘플 립스틱등을 누군가 봉투에 담아 넣어주시기도 했었다. 미사가 유명해지자 공장은 이전했고 그 장소와 그땐 내가 살던 집은 신축빌라로 자리 잡았다. 그 앞쪽에 건물지하에는 슈퍼가 있다. 내가 이사 간다고 이제 누가 팔아주냐며 아쉬워하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하시던 작은 슈퍼는 언젠가 갑자기 사라졌고, 아직 빈 공간이



다. 그 옆으로 낡은 연립단지가 있다. 이곳도 곧 재건축을 한다고 한다. 사잇길로 내려가 보자. 아는 사람들만 아는 아주 좁다란 지름길이 나온다. 따라 내려가면 도로가 나온다. 여기까지가 나의 여행코스이다. 우리동네에 많은 공간들.. 그 많은 추억의 장소들이 차차 사라지고 새로 지어지며 이제는 기억속에만 어렴풋이 남아 있는 공간들이 있다.

하지만, 글을 쓴 덕분에 더 오래 기억 될 테니 참 다행이다.



독산4동

마을지기6기 임은희



독산동의 유래

독산동의 독(禿)자는 잘 쓰이지 않는 자이다. 까치머리의 독, 대머리 독자를 사용한 지명에서 알 수 있듯 이 동명의 유래는 이 마을의 산봉우리에 나무가 없어 벌거숭이 산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된 강희(姜曦)의 말에 의하면 “내 집 뒤에 산이 있는데 벌거숭이 산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독산이라 한다.

원래는 나무가 있었으나 한성교외에 있는 까닭에 도끼로 찍히고, 소·염소 따위에서 먹힘을 당하여 벌거숭이가 되었다”고 했다.

강희는 고려조 강감찬 장군의 후손이며, 비록 그의 생몰연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세종 21년(1439)에 문과에 급제한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 중기 이전의 사람으로 확인된다. 그러므로 독산동이라 불리기 시작한 것도 그 이전부터라 할 수 있다. 또 강희의 본관이 금천(衿川)이며, 호는 독산(禿山)이었다.

독산4동



여행코스

- ① 한평정원+도시광부
- ② 전봇대꽃길



사람꽃 피는 마을 골목길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임은희

독산4동은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살기좋은마을로 함께 바꾸어 가는 마을사업을 2014년 부터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동네문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참여하고 해결 해 보고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늘 문제였던 골목길 쓰레기가 사라지고 꽃피는예쁜 골목길들이 생겨나고 서로 인사하는 이웃이 많아져 갑니다. 함께 심는 꽃길 독산4동 골목길 여행 같이 해보실래요?

나에게 마을이란?

고목나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오랜 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키며 때로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고 때로는 쉼을 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과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요.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마을지기 활동을 통해 무심히 지나쳤던 마을에 이곳 저곳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알게 되었습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6기 마을지기님들과의 함께 한 시간들이 삶의 활력을 얻는 기회였습니다.



① 한평정원+도시광부

쓰레기가 버려지는 자투리공터를 한평정원으로 가꾸는 우리동네 사람꽃 마을정원사들이 있다.



② 전봇대 꽃길

재활용정거장을 운영하는 독산4동 도시광부들이 쓰레기가 모이는 전봇대에 아이들의 그림과 꽃화분으로 새단장을 했다. 이런 활동을 더 많은 동네 사람들이 참여하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좀 더 전문적인 '정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배움의 공간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일까? 지금은 일정한 공간 없이 활동 중심으로 모임을 이어가고 있지만, 마을 주민들이 모이는 아지트(작은 정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도시광부들과 나누면서, 마을은 옛 것을 보존하면서도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③ 담장 없는 골목정원





시흥1동

마을지기6기 박미진
류희춘



시흥동의 유래

시흥동은 옛부터 시흥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도 그랬듯이 관아의 소재지는 대개 현내리, 군내리, 읍내리 등으로 불리었다. 이곳도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면 여지도서에는 현내면 상평리(上坪里),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현내면 읍내리(邑內里)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하여 시흥군 군내면 군내동이던 것을 시흥군 동면 시흥리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지금의 시흥동은『시흥』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시흥1동



여행코스

- ① 금천구청역 고명산업(연탄공장)
- ② 한내텃밭(옛 주말농장자리)
- ③ 현대시장, 대명시장
- ④ 금천구 다문화지원센터

사사로운 마을시장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박미진(좌), 류희춘(우)

우리동네 구석구석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라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현재의 시장이란 무엇인지 마을에서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새롭게 변해가는 모습들이 대조적인
시흥1동의 모습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변화된 모습중에 다문화에 대해 관심이 가지게 되었고
시흥1동 시장을 중심으로 여러나라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시장여행을 통해 다양함을 이행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어서 사사로운 마을시장으로 여행을 떠나 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마을이란?

박미진 | 마을이란 단어가 무척 어렵게 다가왔는데요 지금 마을지기교육을 받고 보니 마을이란 단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다가 옵니다

류희춘 | 그냥 지금껏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함께하는 친구처럼 조금은 내게 다가 옵니다. 아직도 어렵고 어떤 선이 그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줄은 제가 먼저 쳤는지 모릅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라는 단어를 생각나게 하는 곳이 되어갑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박미진 | 처음 교육을 받을때는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분 한분씩 알게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되어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마을일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하고 알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마을지기 교육을 끝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 유익하였고 모르는걸 알게 되었고 마을에 대해 많은 걸 배우게 되었다.

류희춘 | 교육기간동안 많이 힘들고 현재 내가 잘하고 있나 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더 군요. 과연 내가 이 길을 가는게 맞는 건지 도대체 참 어렵다. 처음에 왔을 때와 중간 과정에서의 나 그리고 현재의 모습. 변화된 것 같지 않지만 조금은 변화된듯한 생각들...그속에 '든든함'. 나와 같은 생각을 한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든든함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물리적인 공간과 실물은 이제 사라지지만 그 기억을 기록으로 바꾸기 위해 이렇게 사진과 글로 담아봅니다. 시흥1동의 기록은 바로 사라져가는 것과 새롭게 변해가는 것들이 공존하는 시흥1동의 모습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공간 중의 하나가 시장인데요, 시장여행이라는 테마로 시흥1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기록으로 담았습니다

① 흑색-추억속으로 사라 질 수 있는 것들

흑색으로 표시된 모습들은 과거의 아쉬움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나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철물점이 정말 크게 와 닿았었는데요, 과거에는 집에서 필요한 공구나 수리할 일에 대해 철물점을 찾았지만 이제는 철물점을 찾는 일이 많이 드물어졌죠. 하나 둘씩 사라져 갈 모습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연두색-현재의 모습이지만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들

연두색의 사진들은 현재의 모습이지만 이들 역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것들입니다.



③ 빨간색-다양성을 기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존해 나가야 할 것들

빨간색의 모습은 다양성을 기준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존해 나가야 할 것들을 담았는데요. 다문화 지원센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성장해나갈 것들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상생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다가다 마주했던 모습들, 또 시간이 흘러 시흥1동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시흥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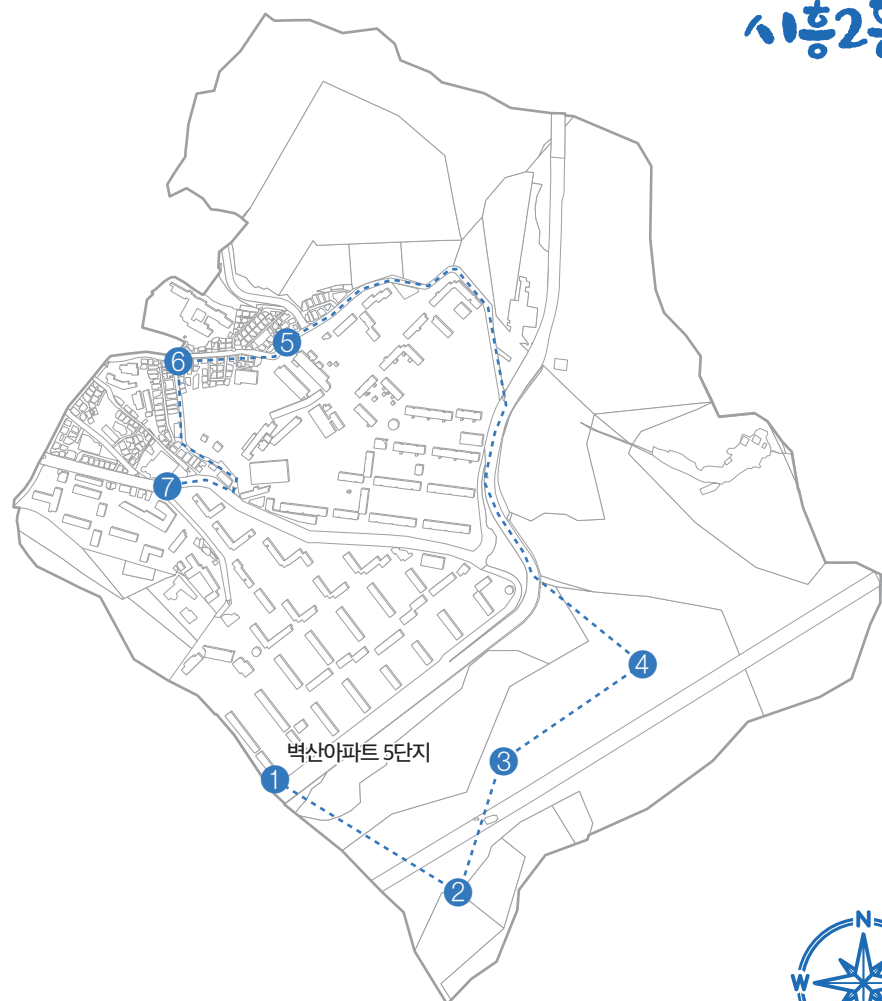
마을지기6기 김은경
이재옥



시흥동의 유래

시흥동은 옛부터 시흥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도 그랬듯이 관아의 소재지는 대개 현내리, 군내리, 읍내리 등으로 불리었다. 이곳도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면 여지도서에는 현내면 상평리(上坪里),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현내면 읍내리(邑內里)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하여 시흥군 군내면 군내동이던 것을 시흥군 동면 시흥리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지금의 시흥동은『시흥』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시흥2동



여행코스

- ① 벽산아파트 5단지 ② 한우물(석구상), 호암산성, 불영암 ③ 잣나무 숲 길(호암늘솔길)
 ④ 호암사 ⑤ 반초갤러리 ⑥ 향나무와 삼층석탑
 ⑦ 시흥2동 주민센터 2층 - 주민자치위원실 (마을여행 스탬프 찍으러 여행소감을 나누어요.)

시흥2동
보물찾기 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은경(좌), 이재옥(우)

생태적 환경이 뛰어난 우리 동네는요~
 역사를 간직한 유적도 근거리에 있어 자연환경을 즐기며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기에 좋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자연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시키며,
 문화유적지 근처에서 살아가는 긍정적 에너지와 자부심 또한 생기게 하는
 좋은 여행이 되리라 기대 해 봅니다.
 함께 떠나 보실래요?

나에게 마을이란?

김은경 |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환경이 함께하는 소중한 장소이자 내 삶이 녹아져 있는 추억의 장소, 그리고 미래의 보금자리.

이재옥 | 희로애락을 함께 느끼며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김은경 | 교육받고 미션 수행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갈 거예요. 한 회 한 회 뜻깊은 배움의 시간 보내시고 행복하게 우리 마을에서 함께 살아요^^

이재옥 |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관심을 가지고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갈 길을 제가 조금 앞서가고 있는 것 뿐이라는 마음이 드어요. 마을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하고 작은 실천과 변화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마을여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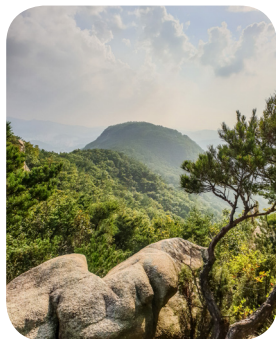


① 벽산아파트 5단지

마을버스 금천01를 타고 '호암사 입구' 정거장에서 내려도 좋고, 준비운동 삼아 많이 걷고 싶다면 '벽산아파트 5단지'등 산로 입구 부터 걸어 올라와도 좋습니다. 호암산 덕분인지 이곳이 서울임을 잠시 잊게 해 줄 만큼 공기가 좋습니다.

② 한우물(석구상), 호암산성, 불영암

태조의 한양 도읍을 방해하던 두 기운이 있었는데 첫째는 앞서 말한 호암산의 호랑이 기운이고, 둘째는 관악산의 불의 기운이었다. 호랑이의 기운을 <호암사>가 잡았다면 불의 기운을 잡은 것이 <석구상>이다. 또한 이 석구상이 경복궁의 해태와 마주보는 위치에 있어 둘이 함께 서울의 화재 또한 막는 의미라고하니 참 흥미롭다.



③ 잣나무 숲길(호암늘솔길)

언제나 솔바람이 부는 길이란 뜻을 가진 호암 늘솔길이다. 잣나무를 비롯한 무성하고 건장한 나무들이 빼곡이 있으며 중간중간 정자와 대청마루, 북카페, 쉼터와 벤치가 있어 쉬어갈 수 있다. 서울 둘레길 5코스에 걸쳐 있기도 하며 시흥2동에 명소로 손꼽힐 만한 곳이다.

④ 호암사

호암사는 불교 수행의 도량이지만 풍수적으로는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상징성 또한 함께 지니고 있는 사찰이며 조선왕조 1391(태조2)년 무학 대사가 창건한 사찰이다.



⑤ 반초갤러리

칠보공예 작품을 중심으로 DIY칠보체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⑥ 향나무와 삼층석탑

향나무는 일년에 한 번씩 동네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평온과 안녕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낼만큼 중요한 마을의 수호수였으며 현재는 시보호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향나무 그늘 아래에 아담하고 잔잔한 3층석탑이 하나 있는데, 이 탑에 관해 자세한 역사는 없으나 500년 이상된 탑으로 추정되며 구술기록에 의하면 자식이 없는 아낙네가 이 탑에 정성들여 기도를 하면 아들을 낳았다고 합니다.



⑦ 시흥2동 주민센터2층- 주민자치회

여행을 마치고 들려주시면 마을여행 스탬프를 찍으며 여행소감을 함께 나누어요.



시흥3동

마을지기6기 강영선



시흥동의 유래

시흥동은 옛부터 시흥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도 그러했듯이 관아의 소재지는 대개 현내리, 군내리, 읍내리 등으로 불리었다. 이곳도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면 여지도서에는 현내면 상평리(上坪里),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현내면 읍내리(邑內里)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하여 시흥군 군내면 군내동이던 것을 시흥군 동면 시흥리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지금의 시흥동은『시흥』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우리동네 알고 걸어가 보자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강영선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3동이 어떤 곳인지 살면서 한번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같이 생각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내 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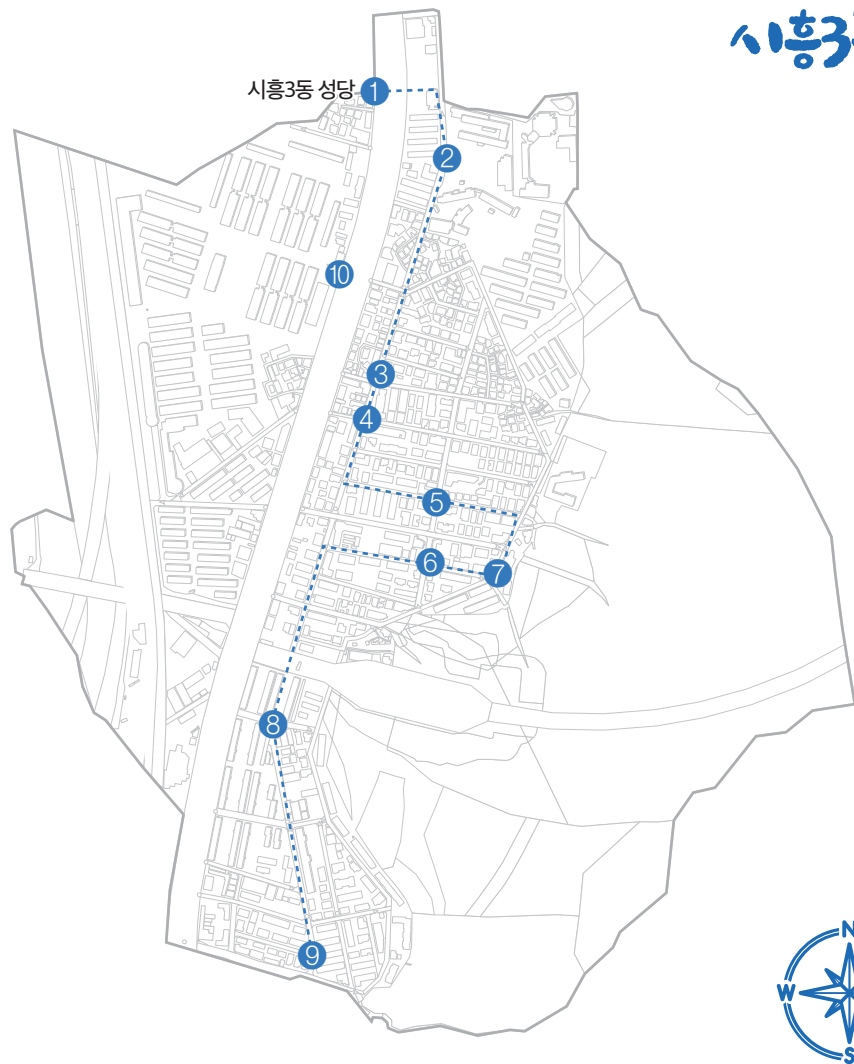
나에게 마을이란?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옷 차림을 하고 걸어도 쉽게 대문 밖을 나갈 수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인사 나눌 수 있는 곳.
내가 사는 마을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 가는 곳.
나중에 여기에 살지 않더라도 기억 속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곳.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스쳐 지나가는게 아니라 그들과 인사 나누면서 사소한 오해도 이해 할 수 있고, 작은 이해 관계에서도 조금은 관대해지고 양보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나눌수 있게 되는거 같아요.
마을지기를 하면서 시흥3동이 아니라 우리 마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웃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도 하게 되었구요.
우리 시흥3동을 위해 같이 모여 생각을 나눠봐요^^

시흥3동



여행코스

- ① 가장 오래된 건물 시흥3동 성당
- ② 가장 오래된 맛집 초가삼계탕
- ③ 2대째 운영하는 추억의 목욕탕 박미사우나
- ④ 아이들의 참새방앗간 5949문구팬시
- ⑤ 가장 오래된 빌라 미도빌라
- ⑥ 가장 오래된 회사 한일산업운수회사
- ⑦ 마을사랑방 박미 마을 회관
- ⑧ 건설철제의 움직임은 이곳에서 시작 중앙철제종합상가
- ⑨ 우리동네 제일 끝 집
- ⑩ 시흥3동 세금의 원천은 이곳이 아닐까? 시흥유통상가





슬리퍼를 신고, 편안한 옷 차림을 하고 걸어도 쉽게 대문 밖을 나갈 수 있는 곳, 누구를 만나든지 서로 인사나눌 수 있는 곳, 내가 사는 마을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시흥3동이 어떤 곳인지 살면서 한번쯤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며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며 좋겠다는 생각으로 안내해 봅니다.

① 가장 오래된 건물-시흥3동 성당

1971년 9월 21일 시흥3동이 생기기도 전에 지어진 성당.

바깥에서 보면 성당인줄도 모를만큼 소박하고, 조용하게 우리곁을 지키고 있는 시흥3동의 모습과 닮은 공간.



② 가장 오래된 맛집-초가삼계탕

금천폭포공원 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나오는 이곳. 건물 외부만 보더라도 오랜 맛집에 향기가 느껴진다. 메뉴가 들깨삼계탕, 2대째 운영중인 우리동네 맛집.

③ 추억의 목욕탕-박미사우나

쌀쌀해진 날씨에 딱 어울리는 장소, 그 곳은 바로 박미사우나 한자리를 지키고 2대째 운영중인 추억의 목욕탕.



④ 아이들의 참새방앗간 5949문구팬시

아이들이 문구점에 오구, 사구 한다는 뜻으로 5949.

5949를 지나칠 때면 매일 문구점에서 뽑기, 달고나도 해먹었던 어린시절 추억이 떠오른다.



⑤ 가장 오래된 빌라 미도빌라

시흥3동959-3에 위치한 1982년 9월 23일 지어진 빌라. 올해가 지나면 옛날 모습이 사라진다. 시흥3동의 첫 다세대 주택이었던 사계절 꽃이 이쁜 곳.

⑥ 가장 오래된 회사 한일사업운수회사

1960년도에 창립되어 1975년 시흥3동으로 이사왔고, 지금도 운영중인 12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회사.



⑦ 마을사랑방 박미마을회관

시흥3동의 모든 행사가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곳, 1층 카페에서 따뜻한 차한잔 하며 수다를 떨어보자.

⑧ 건설철제의 움직임, 중앙철제종합상가

⑨ 우리동네 제일 끝집

서울이 끝나는 시흥3동의 제일 끝집, 이곳에서 세발자국만 가면 경기도 안양. 석수동 만남의 광장과 만나는 곳.



⑩ 시흥3동 세금의 원천, 시흥유통상가



시흥4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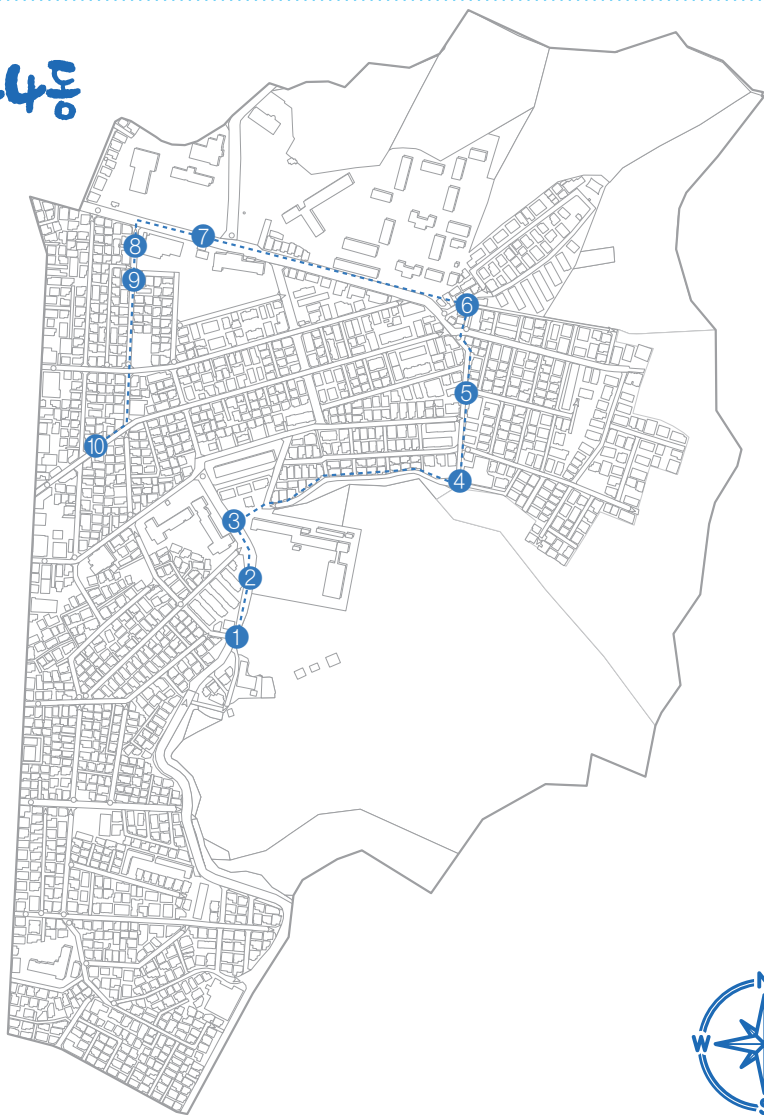
마을지기6기 김진선
김지민
유재준



시흥4동-새재미마을이 뭐지?

시흥4동에 있던 골짜기 이름으로 큰 새재미와 작은 새재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여러 문헌을 찾아봐도 새재미가 시흥4동의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새재미라는 이름은 2012년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에저니자립마을의 이름으로 우리동에서 새롭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악산이 인접하고 있으며 삼성산과 독산동 길 사이에 위치하며, 남부여성발전센터와 산기슭공원이 소재하는 비교적 생활이 안정된 순수주거지역이 주로 형성되어 있는 동입니다.

시흥4동



여행코스

- ① 순흥안씨 양도공파묘역
- ② 강희맹 집터
- ③ 서울신흥초등학교
- ④ 땃골마당
- ⑤ 새재미 에너지상징거리
- ⑥ 새재미 마을 활력소
- ⑦ 산기슭 공원
- ⑧ 남부여성 발전센터
- ⑨ 한울 중 옆 한울타리 골목
- ⑩ 시흥 4동 주민센터(시4랑 까페, 도란도란 작은 도서관)

시흥4동
어디까지 가봤니?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김진선(좌), 김지민(우)

결혼과 동시에 시흥4동에 정착했습니다.
이사 온 이후, 첫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과 아는 곳만 다니며 지내왔는데
아는 이웃도 없었고, 동네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라서였어요.
아마 나와 같이 시흥4동이 낯선 이웃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처럼 아는 곳만
다니고 있을 누군가에게 시흥4동의 곳곳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마을을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관심이 생기고, 이웃이 생기고,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유익해질 것이라 기대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금천구 시흥4동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 유적이 근거리에서 있어
접근성이 좋고, 사용가능한 사랑방 같은 공간이 많이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매력이 있는 시흥4동의 매력속으로 풍덩~~ 빠져 보자구용!

나에게 마을이란?

김진선 | '생생한 이야기'이다. 나와 이웃이 함께 만들어가는 추억이며, 현재이고 미래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울릴 더울릴 살아갈 공간이다.

김지민 | 어릴적 동네에서 함께 뛰놀던 소꿉친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곳.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김진선 | 처음엔 '내가 뭐하는 거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때 포기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함께해 보세요. 매번 미션이 힘들 수도 있지만, 미션을
수행할 때마다 조금씩 배워가고, 성장하는 나를 발견하실 겁니다.

시작이 반... 시작하셨다면 이미 반은 하신 거예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끝
까지 활기차게, 보람차게... 아자아자~~

김지민 |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완전 강추!

더 깊은 마을여행 이야기



1 순흥안씨 양도공파묘역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74호(지정일 1990년 6월 18일). 조선 초의 문신 안경공과 그 후손(안순, 안송선)의 묘역으로 3대에 걸친 묘와 부속시설(문인석과 묘비, 신도비, 장명등)이 보존이 잘 되어있고, 5기의 봉분의 모양과 문인석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조선초기의 분묘제도와 석물의 변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배산임수의 지형이고, 왕의 능으로 삼으려고 정해둔 터 중 한 곳이었다고 한다. 매년 1월 10일 순흥안씨의 시제사가 있다.



2 강희맹집터

안송선의 묘 바로 앞에 자리잡고 있는 강희맹의 살던 터, 지금은 빌라 4동이 서있지만, 예전에는 99칸의 방이 있는 강희맹이 집터라고, 강희맹은 안송선의 첫 사위로 안송선의 시묘살이를 위해 금천으로 왔다고 한다.

3 서울신흥초등학교

서울에서 제일 처음으로 통폐합된 학교... 시흥동에는 인접거리에 초등학교가 많고, 중학교가 없어서, 제일 많이 인접해 있던 홍일초와 신흥초를 통합하고 홍일초가 있던 자리에 한울중학교가 이전했다. 새벽시간에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이 하교한 이후에는 주민개방도서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4 땃골마당

신흥초 옆 신흥공원을 지나 땃골마당을 따라 오르면 보조등산로로 호암산으로 고고~~성할 수 있다. 땃골마당에서 거울철에 마을을 내려다 보면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 주택이 아름답게 모여있어서 장관이라고 한다.

5 새재미에너지상징거리

에너지 상징거리는 2012년 서울시의 원전 하나줄이기 사업에 참여하여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된 시흥4동은 '새재미 에너지자립마을'로 다시 태어났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매월 22일에 새재미활력소에서 영화상영을 하여 한 달에 한번 가정의 불끄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주택가 벽에 벽화를 그리고 조형물을 달아 에너지 상징거리를 만들었다.
(새재미: 골짜기를 말한다.)

6 새재미마을활력소

공유창고(나눔의 창터: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져다쓰는 공간), 1000원 5곡을 부를 수 있는 노래방, 팩스와 복사기도 사용 가능, 한 달에 한번 영화도 보고 공유부엌에서 음식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유희공간으로 누구나 대환영~입니다.



7 산기슭공원

마을과 학교가 함께 하는 마을축제 한울중학교와 해마다 마을축제를 해요.

8 남부여성발전센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여성취업박람회등 여성들의 재취업 도전을 응원하는 곳이에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https://nambu.seoulwomanup.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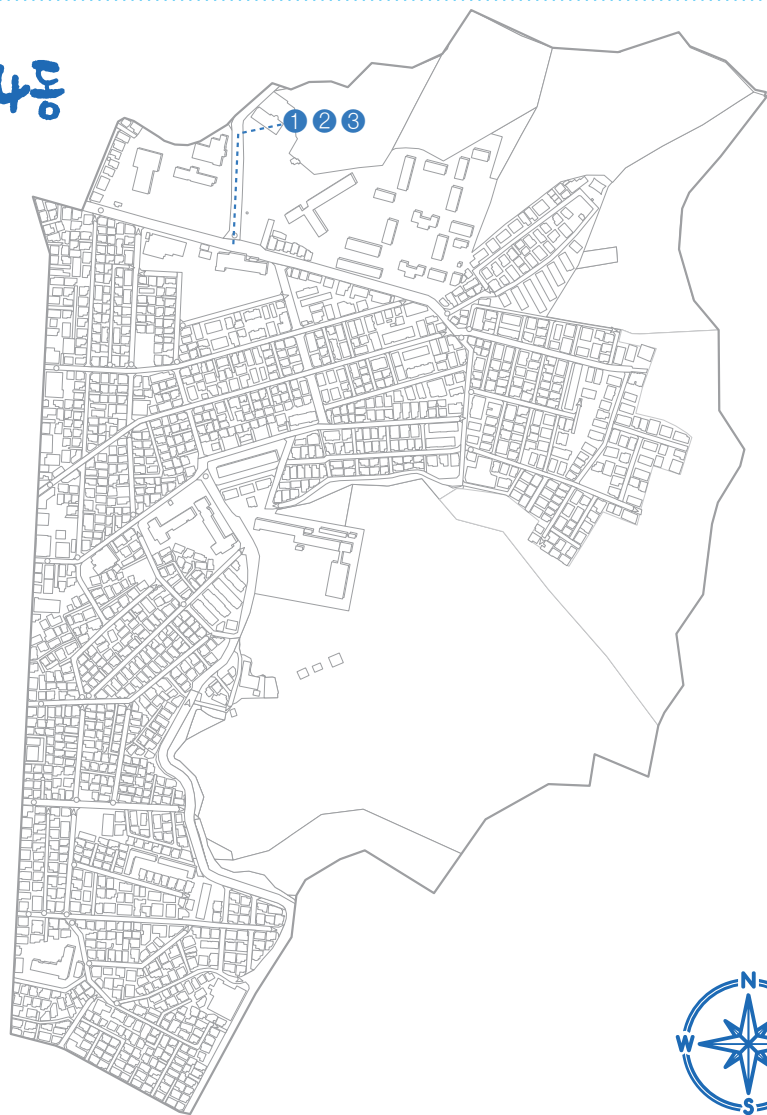
9 한울중영 한울타리 골목

한울중학교가 이전해 오면서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학생들과 주민이 한울공동체를 결성하여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던 곳이다. 어둡고 비위생적인 골목에 조형물과 소망벽화를 설치하였고, 포토존을 만들어 누구나 찾아 올 수 있는 골목으로 탈바꿈하였다.

10 시흥4동주민센터 내 시4랑카페와 도란도란도서관등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희공간을 알고 적절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흥4동



여행코스

- ❶ 산기슭공원 광장 출발
- ❷ 산기슭 숲 속길 진입
- ❸ 삼익체련장에서 다양한 운동기구로 스트레칭, 단련



Friendly+ Lovely

주니의 마을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유재준

청정한 숲을 품은 시흥4동.
 맑은 공기와 흙을 밟으면서 심호흡을 한다면 몸속에 노폐물이
 모두 배출되고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도 모두 날아가고,
 스트레칭으로 체력보강을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웃들과이야기를
 풀어내다 보면 이것이 우리가 동네에서 찾을 수 있는
 사사로운 마을행복이 아닐까요?

나에게 마을이란?

원두막이다.

어른과 아이들 모두 구별 없이 어울어져 놀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학습으로 지성, 감성을 배우면서 같이 발전하고 1세대, 3세대 모두가 행복할 수 있으니까요.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예전에는 관심이 없는 동네 소식이었는데, 정장 8개월의 마을지기 교육과정을 함께 하면서 나의 뒷 모습은 어느새 이웃들의 모습으로 변해있는 저를 봅니다.
 함께 활동하는 훌륭한 마을친구들도 생겼거든요~
 이보다 큰 행복이 또 있을까? 라고 생각 해 봅니다.
 모든 것에 마음속 고마움을 보내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사노라면 그다지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깊은 마을여행 이야기



② 산기슭 숲속길 진입

「마을여행 이야기」라고 써놓고 해보려니 평소 다니면서 해보던 일들인데도 무심하게 지나치던 것들이 눈앞에 많이 보인다. 푸르던 앞들이 하나 둘씩 낙엽지기 시작하고 붉게 물들기 시작하는 활엽수들의 잎사귀가 아름답게 보인다. 틈새에 피어있는 아주 작은 들꽃까지 아름답게 보인다. 체련장에서 가볍게 몸을 단련하는 이웃들의 모습, 신나게 주인과 함께 달리는 반려견의 모습. 역시나 여행은 즐거운 것이다.



① 산기슭공원 광장 출발

관악산 둘레길의 한줄기인 산기슭공원에서 금천체육공원 호암사로 넘어가는 둘레길에서 삼익 체련장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13세~18세)은 물론 성인기(19세~64세)를 포함한 모든 연령의 사람 및 반려동물도 함께~~갈수 있는 여행코스입니다.



④ 삼익체련장

둘레길코스를 여행하다보면 건강해지는 몸과 함께 생각도 산뜻해진다.

자연의 정적함에 나를 돌아 볼 수 있고, 세상의 흐름을 알고 일면식도 없는 타인들과 교류하고 자신을 위로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을 만들면서 한 편으로는 건강한 마음으로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흥5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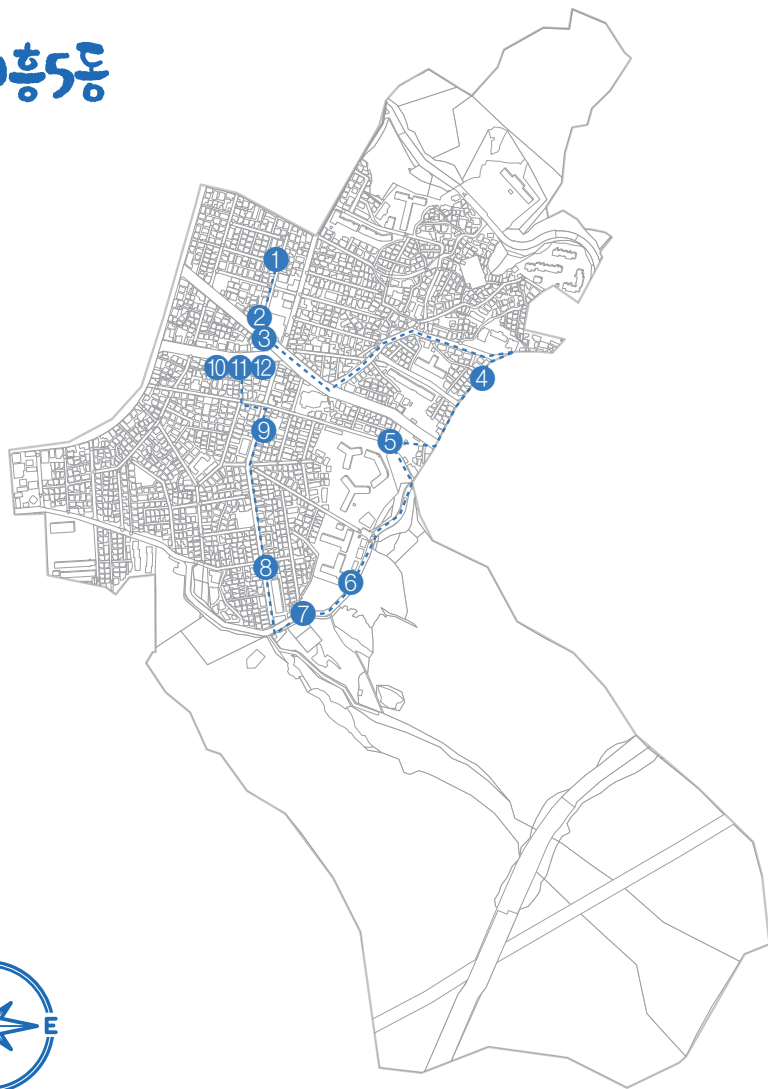
마을지기6기 조해진
최진



시흥동의 유래

시흥동은 옛부터 시흥이 아니었다. 다른 고을도 그러했듯이 관아의 소재지는 대개 현내리, 군내리, 읍내리 등으로 불리었다. 이곳도 기록상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해 보면 여지도서에는 현내면 상평리(上坪里),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현내면 읍내리(邑內里)로 기록하고 있다. 1914년 3월1일 부령(府令) 제111호에 의하여 시흥군 군내면 군내동이던 것을 시흥군 동면 시흥리로 변경했다. 이때부터 지금의 시흥동은『시흥』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

시흥5동



여행코스

- ① 시흥5동주민센터 ② 은행나무앞 벤치(할머니들 담소) ③ 어울샘 ④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⑤ 자연드림
⑥ 복합생태공원 ⑦ 시흥계곡 ⑧ 산아래문화학교 ⑨ 어깨동무까페 ⑩ 하마터면-마을현대안학교
⑪ 은행나무앞 정자(할아버지들 장기) ⑫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금천1번가)

GOGO의
시흥5동 마을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조혜진

마을공동체를 이루는 모임을 중심으로
시흥5동의 재미난 곳들을 둘러 봅니다.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되어 있는 우리동네 곳곳을 돌아보며
공동체 개념을 새롭게 배우고 설만한 곳과 즐길만한 곳,
정보를 나눌만한 곳을 둘러보고 나와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켜 보면 어떨까요?

나에게 마을이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 너와 내가 연결되어 '우리'가 되는 곳.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 바로 '유기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게 전하고 싶은 말?

마을의 작은 곳, 작은 사람들까지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해야 할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 명확히 보
입니다.

함께해요 미래의 마을지기님^^



시흥5동의 마을활동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행을 안내 해 봅니다. 마을에서 활동가하는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으면 좋겠고, 여행을 통해서 시흥5동을 더욱 아끼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공간들을 소개합니다.



① 시흥5동주민센터

시흥5동에 이사오면 가장 먼저 들르게 될 곳이에요.
복사기도 쓸 수 있고 2층 도서관도 이용할 수 있
어요. 2층에 있는 주민자치회에 가면 박원주 동지지원관
과 박원희 주민자치회 간사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② 은행나무앞 벤치(할머니들 담소)

아침부터 저녁까지 릴레이 담소가 이어지는 곳이에요.

"담소가 아니라 싸우던데?"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그 모든 이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곳이지요^^



③ 마을활력소 어울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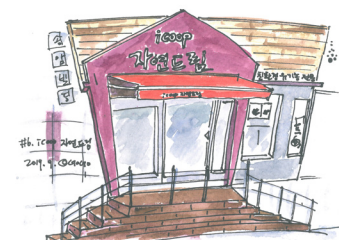
리모델링 전 유리문으로 되어 있을 때 주민들이 편하게 오고 가던 곳이에요. 지금은 건물
의 겉모습이 남영동 대공분실 같다는 얘기도 듣고 주민들의 발길을 주춤하게 만들기도 하
지만 실상 안으로 들어가보면 이런저런 재미난 예술활동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나의 드
로잉, 판화 작업실이기도 하고 여러 동아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복작복작 무언가
를 하고 있어요. 특히나 3층은 누구나 올 수 있는 부담없는 곳이에요.



④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

탑동초 근처 골목길에 위치한 책놀이터예요.

배 깔고 엎드려 책을 읽을 수 있는 곳이지. 특히 기순선배, 선화선배와 행복했던 곳. 책은 읽고 싶을 때, 읽고 싶은 만큼만 읽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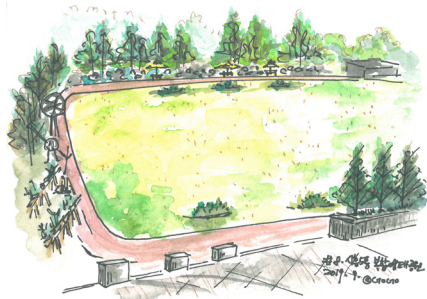


⑤ 자연드림

생활협동조합이예요. 맛있는 당근사과주스, 맛있는 식혜, 맛있는 추어탕, 맛있는 감귤, 맛있는 김, 맛있는 마른오징어, 맛있는 삼치, 맛있는 초코파이, 맛있는 누룽지, 맛있는 까페라떼, 맛있는 소고기, 맛있는 삼겹살, 맛있는 모닝빵, 맛있는 것들이 아주 많은 곳이에요.

⑥ 복합생태공원

우리는 이 곳을 잔디밭 공원이라고 불리요, 금천구에 유일(?)하게 푸른 생잔디가 있는 공원이예요. 지난 여름 아들이랑 아침부터 밤까지 몇시간이고 1:1 축구 시합을 하던 곳이에요, 딸이랑 줄넘기하고 피구하던 곳. 시흥5동 사람들이 플라마켓하고 이런저런 재미난 것들이 열리는 곳이에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멋진 곳이에요. 요즘 잔디밭을 없애고 화단을 꾸민다는 얘기가 있어서 슬퍼요, 잔디밭을 그대로 보전해주세요~~~~!!!
우리에게는 넓은 잔디밭, 푸른 광장이 필요해요~~~~!!!



⑦ 시흥계곡

여름에 가면 특히나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 부는 곳이에요. 둘이 가도 좋고 여럿이 가도 좋고 혼자 가도 좋은 곳이에요. 집을 나와 걸어서 갈 수 있는 계곡이 동네에 있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여기서 가재를 잡던 분들도 많아요~

⑧ 산아래문화학교

'백양세탁'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산아래문화학교, 최대한 재미나게, 최대한 신선하게, 최대한 독특하게. 어떻게 하면 신나게 놀 수 있을지 궁리하는 쌤들과 아이들, 어른들이 작당모의하는 곳이에요. 아마 곧 근처 다른 곳으로 등지를 옮길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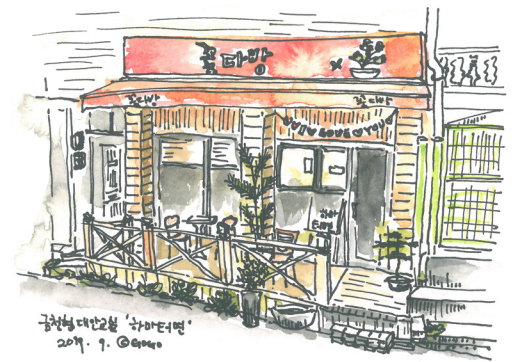


⑨ 아깨동무카페

우리동네 미술사 김성철 쌤과 그의 그녀가 함께 꾸려가는 곳이에요. 커피도 맛있고 수제차도 맛있고 가격도 착하고 덤으로 미술사님의 깨알농담과 호탕한 웃음을 얻어가는 곳. 하지만 기억하세요, 미술사님의 얘기 중 99%는 땡이라는 것 ^^ 과 카페 사장님은 그의 '그녀'라는 사실.

⑩ 하마터면-마을형대안학교

'꽃다방'이라고 써진 간판을 달고 있는 곳을 임대해서 대안교실로 쓰고 있었어요. 지금은 2기 수료식을 마쳤는데 3기에는 '카페 자리'로 옮긴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천방지축 제멋대로의 청소년들이 제멋대로의 선생님(정선화)과 함께 이런저런 추억을 만들어가며 스스로 성장해가는 곳. 그 아이들이 무언가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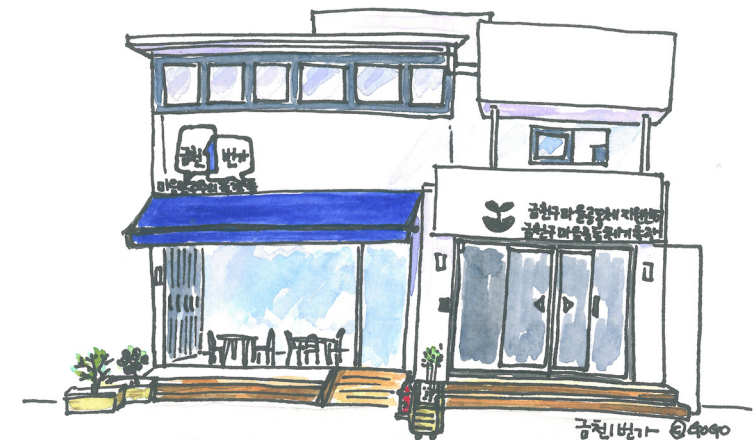


⑪ 은행나무앞 정자(할아버지들장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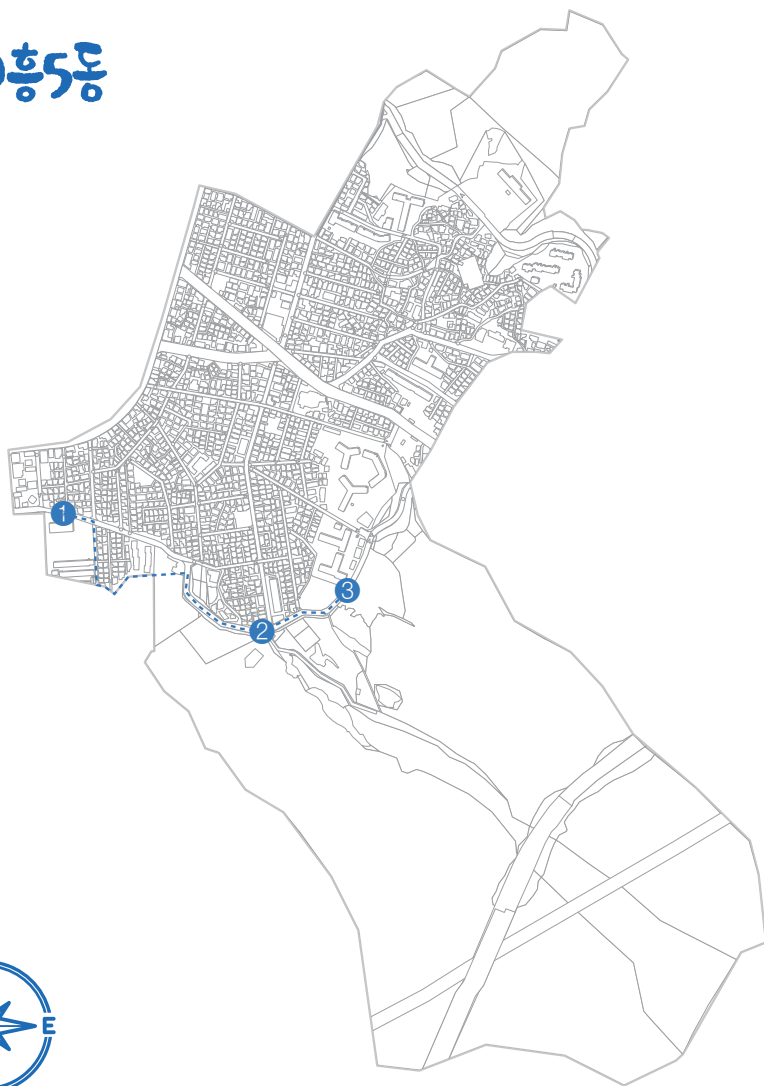
동네 할아버지들이 펼치는 장기리그. 동네 숨은 장기 고수들이 틈날 때마다 자야기 환관 벌이는 곳이에요. 2019 JCS FALL 시흥장기리그 WINNER 이호선 할아버지가 평일에 손주를 돌보다가 주말이면 가끔 들러 장기를 두는 곳이에요.

⑫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금천번가)

나에게는 금천구청보다 더 금천구 대표의 느낌이 강한 곳이에요. 마을지기와 마을활동가들, 마을주민들, 마을공동체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며 차도 마시고, 모임도 하고, 강의도 듣고, 기획도 하는 곳. 이상원과 김현정 앵커를 닮은 센터장님, 그리고 조영진 국장님 그 외 센터식구들이 항상 반겨주는 곳이에요. 마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물어볼 수 있어요.



시흥5동



여행코스

- ❶ 백산초등학교
- ❷ 웅벽길
- ❸ 복합 생태공원



막내와 우리동네 가을여행



여행안내자 마을지기6기 최진

아빠처럼 앞만 보고 살지 말고 주위의 소중한 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며,
우리동네 호암산 자락의 돌레를 따라 아빠와 손잡고 함께 걷는 그 길에
들려주는 화려한 가을과 인생이야기를 음미하며 한번 떠나 볼까요?

나에게 마을이란?

지나가다 우연히 들른곳. 15년이 넘게 살고있는 곳이다.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곳이라고 생각진 않았지만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른곳으로 옮기기 힘들고 직장을 다니면 아침, 밤에만 머물고 필요한 것은 인터넷으로 변화가로 나가서 구매를 하곤 했었다.
오래 머물거라 생각지 않고 당장 하루 하루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지내면서 시간이 갔지만 오래 머물거라 생각지 않고 여유없이 생활하다 보니 오랫동안 살고 있다.
마을은 우리집에 가기 위해 지나가는 과정이었다.

미래의 마을지기에겐 전하고 싶은 말?

개인주의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환경에 옛날 같은 마을이라고?
10년 20년을 보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0년, 200년을 보면 지금의 개인주의는 과도기적 모습이지 않을까?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다.
결국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개인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때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연결의 시작을 이끌어 주는 핵심이 마을지기가라 생각한다.



아슬아슬하게 시흥5동의 경계를 벗어난 시흥3동의 인공폭포에서부터 시흥5동의 버스종점까지 차타고 멀리가지 않고 서도 힘들게 정상까지 오르지 않고도 넓은 잔디밭에서 아이들과 뛰 놀수 있는 동네, 쉬엄쉬엄 느긋하게 가을을 즐기고 가족을 느낄 수 있는 가을길로 마을여행을 소개합니다. 내가 항상 다니던 길을 외부인에게 소개한다는 것은 가슴 떨리는 일인데요, 으스스하고 사람이 없어 자주 다니지 않았던 길인데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흥미로운 여행코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마을길의 매력에 빠져 나는 일부러 이 길로 다니는데, 내가 구상한 대로 정말 여행을 떠나 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1 백산초등학교

10년만에 졸업하는 우리 아이들의 학교, 백산 초등학교. 올해를 마지막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막내와 함께 우리 마을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을 걸으며 막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을여행이야기입니다.

2 계절마다 화려한 응벽길

가끔 다른 생각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너무 예뻐 사진에 담아 두고 싶은 곳이 가끔 있지요?

바로 그런 곳. 평소엔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산 옆의 길인데, 어느 순간 '아!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화려한 곳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입니다.

3 복합생태공원

막내와 여름에 물총놀이 하러 왔던 곳인데요, 지금은 잔디가 많이 푸르지만 축구하면서 뛰어다니고, 달이랑 목성이랑 별을 보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로 운동도 하고, 잠 안오는 무더운 여름밤에 나와 더위를 식히던 복합생태 공원입니다. 탁트인 넓은 공간 너머로 예쁘게 물든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으로 단풍이 무척 이쁠답니다. 만약 모든 나무들이 한가지 색의 단풍으로 물들면 단풍이 이쁠까요? 예쁘고 안 예쁜 나뭇잎들이 각자 자기 색을 내고 그 색들이 서로 어우러 졌을때 단풍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색의 나뭇잎들이 모여 아름다운 단풍을 만들듯이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모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때 보다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의 사람들이 함께 지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할까요? 마을지기 교육을 받으며 새롭게 깨달게 된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동네 걷고싶은길을 만들고자 조성했던 동네숲, 꼬숩길은 덤으로 소개합니다.



| 휴먼스오브금천이란?

금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ldmaeul.net

50+마을기록활동가가 여행중에 만난 사람들 휴먼스오브금천



2019 마을기록전
『참여, 변화를 읽다』
일시 : 2019.11.20(수)~2019.11.29(금)
장소 : 금천구마을공동체기록관

50+ 마을기록가를 소개합니다

지난 6월부터 50+서부센터에서 서류심사와 면접..그리고 선정 후 2주간 박센 교육을 받으시고,
7~11월까지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50+마을기록단 활동으로 참여하시는 신선순, 김금주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7월에 7번의 회의를 거쳐서 무엇을, 어떻게, 왜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제 마을로 나아가 공동체 활동기록을 여쭙고, 그 기록활동을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어느날 문득..연락드리고 찾아가게 되면 반갑게 맞아주세요~^^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본적도
처음이에요.



50+기록활동가: 신선순

어울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박미사랑마을회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사랑카페 등
금천구 곳곳에 있는 마을공간들을 방문하여
다양한 마을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 곳에서
정말 의미있는 일들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활동을 하면 할수록 금천구가 앞으로 더 기대되는 마음이 들었구요.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짧은 활동기간이었지만
모든 시간들이 하나하나 값지고
더 많은 이웃들과 마을에서 기록을 담은 활동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사람을 통해 치부되고
또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50+기록활동가: 김금주

짧은 시간들 이었지만 한분 한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는 소중한 만남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삶의 지혜가 있었고 인생의 목표가 있었고
나만의 철학들이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생각들이었지만 그 끝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향기가 나는 세상에서 울고 웃는 우리가 사는
금천구가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었습니다.
남은 후반기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기 위해 사람을 알아가는
저의 행보는 앞으로도 쭉욱 이어 질 것입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참여후기



금천마을지기학교 지원활동가

김종임

매주 화요일, 2주에 한번씩 마을지기학교에 가는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마을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설레임, 마을에 대한 교육들, 5년 전 저를 만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마을지기 학교는 끝났지만 6기분들 앞으로 마을에서 반갑게 만나요.

진미영

처음의 어색하고 떨렸던 만남이 추억이 되었습니다. 한분 한분 소중한 인연이었고, 마을 속 숨은 인재들이셨습니다. 하반기 교육에는 함께하지 못함이 못내 아쉽지만, 마을 안에서 서로의 성장에 힘이 될 수 있길 희망합니다.

금천마을지기학교 6기

진정희 (가산동 마을지기)

금천구로 이사 온지 5년차. 너무 낯설고 외로울 때 마을지기교육을 찾아온 나. 10개동 곳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생소한 곳이라 어려웠는데, 6기과정을 마치는 지금은 금천구가 내품안에 들어와 있고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와 마을여행코스를 만들다 보니 어느덧 가산동 곳곳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화된 나를 발견합니다. 인사를 나누는 이웃들이 더 많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김은선 (독산1동 마을지기)

마을지기 교육에 참여하면서 마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마음은 있지만 아직 행동으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마을지기 교육이 마무리되는 요즘 슬그머니 마을에 들어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는 마을지기6기 김은선입니다.

진재욱 (독산1동 마을지기)

주변에 좋은 이웃이 이사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좋은 이웃이 되어야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아이들 키우며 알게 되었던 동네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을 담아 마을여행 지도를 통해 펼쳐봅니다.

김금주 (독산2동 마을지기)

우연한 계기로 시작된 마을 활동이 나에게 새로운 만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교육들, 마을 탐방,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서로를 알게 되고 그분들을 통해서 나를 되돌아 보면서 앞으로의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런 멋진 기회와 만남들이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다가가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김순희 (독산3동 마을지기)

모르는 것이 많은 만큼 배우고 느끼는 것도 참 많았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도움받고 함께 한다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성일 (독산3동 마을지기)

부족한 점이 많기에 열심히 배우고 참여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알찬 교육과 마을의 한사람으로써 존중해주시며 이끌어 주시던 센터관계자분들과 항상 따뜻한 미소로 함께 해주시던 애정하는 마을지기6기 쌤들께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 잘 간직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노력이 새로 이사오신 분들의 정착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라며.. 혹 이글을 보고 계신 우리 마을로 이사오신분들 환영합니다..우리 함께 행복해요~!!

허희재 (독산3동 마을지기)

길었던 마을지기 6기의 교육 기간과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좋은 분들과 함께 했기에 즐겁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 재발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전입자를 위한 마을 안내서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센터분들께도 감사인사 전합니다.

임은희 (독산4동 마을지기)

내가 살고 있는 금천구 곳곳에 역사 자료는 물론이고 볼거리들이 참 많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이렇게 변모하기까지는 이모양 저모양으로 고생하며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마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덕분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지기 교육을 통해 배웠으니 앞으로 살고 싶은 우리마을로, 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들기위한 곳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봅니다.

박미진 (시흥1동 마을지기)

마을지기6기 교육을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좋았습니다. 또한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에 함께 참여하면서 금천구에 대해서 더 깊게 더 넓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이해하게 되고, 마을지기6기로 함께한 시간들이 일상에서 나로 바로서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더 행복하게 서로 응원합니다.

류희춘 (시흥1동 마을지기)

어느 덧 참여후기라는 문구가 내게 다가오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 말을 하지만 정말 빠르게 흘러온 듯 합니다.

처음 면접보고 마을에 관련된 여러가지 강의를 듣고 때론 동감도가고 때론 어려운 내용들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금천구민들과 야외에서도 편안하게 줌바를 즐길 수 없을까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여러곳에 문의해보아도 저쪽에서 물어봐라... 또 그쪽에 가면 저쪽에서 물어봐라라는 서로 미루기식 답변뿐이어서 정착 어디다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몰라 우왕좌왕 할 때 마을지기를 뽑는다고해서 개인적인 생각에 함께하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으로 마을지기에 지원하게 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교육이 길어질수록 고민과 갈등이 생기더라구요.

도대체 줌바와 관련이 없는데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나 싶은 생각들..

하지만 그것은 짧은 나의 생각이고 시간이 갈수록 내겐 마을지기 쌤들이 멋지고 든든한 지원자이자 동료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여행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곳 곳곳을 들여다보며 무언지 모를 애착도 생기더라구요.

함께 끝까지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천지역에 이렇게 멋진 쌤들이 활동하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나의 기록이 남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다 하니 기쁩니다.

마을지기... 내겐 생각을 좀 더 넓게 가질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한다는 든든함이 커다란 선물입니다.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김은경 (시흥2동 마을지기)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교육받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예전보다는 더욱 마을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과정의 결과가 이 책에 기록으로 남기게 되어 뜻깊고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마을에 호기심을 가지고 더욱 더 성장해나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반 년 동안 함께했던 마을 지기 6기분들과 센터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김혜령 (시흥2동 마을지기)

벌써 마을지기교육이 끝나가네요. 제법 긴 시간이었지만 금천구 각 동의 다양한 활동, 역사, 문화, 소소한 이야기 등을 알게 되어 좋았어요. 교육을 받으면서 사라져가는 옛 모습, 자료들의 소중함도 느꼈습니다.

예전에 무심코 지나친 곳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동네의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곤 합니다. 앞으로도 마을공동체가 더욱더 빛을 발하는 금천1번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 수고 많았어요. 짹짹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김혜영 (시흥2동 마을지기)

이런 활동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한 것은 아니였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과 미션 등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꽤 있었습니다. 회사나 다른 사회생활에서 만날 수 없었던 마을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주변을 보는 여유로움과 타인과 함께 하며 만드는 일상에 대해 즐거움 얻었고 어려움은 조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교육이 끝나도 마을에서 만나요~! 우리

이재옥 (시흥2동 마을지기)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습니다. 24차시의 교육을 받고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 지금은 마을은 제게 관심이 되었습니다. 느리게 조금씩 쌓이는 시간에서 저는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지기 6기 쌤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동네를 걸으며 많이 즐거웠고 행복했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주신 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을지기 6기 쌤들 마을에서 또 반갑게 만나요~

강영선 (시흥3동 마을지기)

마을 지도를 생각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들어야 하나, 마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걸 더 많이 나누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지나칠 수 있었던거, 우리가 살아가는 마을에는 시설도 건물도 좋아야 하지만 그곳을 지키는 이웃이 있어서 행복 한거 같습니다. 이웃..함께여서 고마워요~

김지민 (시흥4동 마을지기)

내 아이가 자라나는 이 마을이 아름답기를 따뜻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마을을 알아보고 사랑하고 싶었죠. 잠깐 살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쭉~~옥 살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좋은 이웃을 많이 만나서 떠나기 싫어졌거든요. 마을안내서를 통해 새로운 이웃이 저처럼 마을을 이해하고 사랑하길 바래요. 그럴 수 있을거예요.

김진선 (시흥4동 마을지기)

마을지기 시작은, 내가 사는 마을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서 었다.

별 생각없이 시작했던 마을지기.. 미션이 나올때마다 '이걸 어찌하나' 싶었다. 그래도 매 미션을 할 때마다 마을과 이웃, 나를 조금씩 더 살펴보게 되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다. 마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아직 배울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그리고, 처음엔 서먹했던 마을지기 6기 쌤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교육받고 미션을 수행한다.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이제 조금 아쉽기도 하다.

난 여전히 미션마다 실행착오가 있긴 하지만, 기꺼이 웃으며 할 정도의 여유도 생겼다. 마을지기 교육을 통해 내가 조금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마을지기 6기 쌤들이 해왔던 미션들이 쌓여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 너무 뜻깊고 설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길 바래본다. 반년 동안 함께 울고 웃고 했던 우리 마을지기 6기분 쌤들과 센터 선생님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했고 즐거웠습니다. 금천구 마을 이곳저곳에서 지금보다 더 자주 볼 수 있길 바래요.

유재준 (시흥4동 마을지기)

예전에는 전혀 관심없는 동네 소식이었는데 장장 8개월의 마을지기 교육과정을 참여하면서 나의 뒷모습은 어느새 이웃들의 모습으로 변해 있네요. 함께 해 준 훌륭한 마을친구들도 생겼습니다.

이보다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모든 것에 마음속 고마움을 전하면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사노라면 그다지 많은게 필요하지 않다.'

조혜진 (시흥5동 마을지기)

처음에는 마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을지기가 되고 마을을 알리는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기 교육을 받다보니 어느새 나도 이전보다 마을을 조금 더 아끼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을에서 즐거운 활동들이 어갈 수 있도록 나보다 더 먼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마을지기 교육이었어요^^ 이끌어주신 우리 센터 샘에게 특히 감사드려요~

최진 (시흥5동 마을지기)

매주 화요일은 마을지기 교육가는 날, 6개월이 넘는 화요일을 마을지기 교육을 받으며 보냈다. 학생시절 글로만 배웠던 교육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노하우를 배운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가 내민 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손이 나에게 도움이 되어 마을을 이루고 나간다는 것. 제일 쉽고 간단한 교육이지만 현대 생활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인생에 추억이 되었다.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마을×사람×자치 생태계그물망을 짜다
금천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센터 사람들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웃만들기, 동(洞)이웃만들기, 공동체만들기, 마을만들기, 골목만들기) ☎ 02.809-8825~6

마을공동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지원

찾아가는 마을교육, 금천마을지기학교, 마을지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마을인문학 등 수요자 맞춤 지역기반 활동가 역량강화교육 등 ☎ 02.809-8826~7

네트워크, 아카이브 지원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 소소한 마을간담회, 소소한 마을공동체 전시회, 마을공동체 기록관 등 관내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연계 ☎ 02.809-8826~7

주민자치회 지원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현장지원, 자치구·동 민관협력체계 구축, 주민자치회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 현장기록 및 아카이빙 ☎ 02.809-8831~2

동별 주민자치회 지원(동자치지원관)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지원

가산동 ☎ 02.2104-5543, 독산1동 ☎ 02.2104-5562
독산2동 ☎ 02.2104-5582, 독산3동 ☎ 02.2104-5603
독산4동 ☎ 02.2104-5623, 시흥1동 ☎ 02.2104-5642
시흥2동 ☎ 02.2104-5662, 시흥3동 ☎ 02.2104-5682
시흥4동 ☎ 02.2104-5702, 시흥5동 ☎ 02.2104-5722



센터가 하는 일

등장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신규 마을공동체를 지원합니다. - 이웃만들기 공모사업
마을공동체 성장을 지원합니다. - 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마을공동체를 통한 다양한 마을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 마을만들기·골목만들기 공모사업

성장

마을공동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 교육성장 지원

찾아가는 마을교육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동별 마을지기를 선발하여 새로운(신규) 마을활동가를 발굴·양성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지원활동가를 양성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으로 마을지원활동가들의 전문성을 키워냅니다.

연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마을공동체 간 서로 배움과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전국마을만들기대회 및 마을탐방으로 관내외 네트워킹을 지원합니다.
‘마을공동체 시상식 뽐’을 통해 한해동안 열심히 활동한 마을공동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뽐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장을 마련합니다.
마을초대석을 통해 새로운 주민들과 공동체의 가치를 함께 배웁니다.

확산

마을공동체 아카이브

마을공동체기록관을 조성하여 마을의 활동을 기록하고, 수집합니다.
수집·기록한 자료들을 마을공동체 전시회를 통해 공유합니다.
온라인플랫폼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기록에 대한 접근을 더욱 쉽게
지원합니다.

주민 자치

주민자치회 지원

금천구 모든동에 동자치지원관을 파견하여 주민자치회 운영과 활동을
촉진 지원합니다.
주민자치회 사업 기획 및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자치회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합니다.



시민참여·자치분권을 통한 주민자치력 강화

민관 협력에 기반한 금천구 마을생태계 조성



주소 서울시 금천구 은행나무로 45
전화 02.809.8825~7, 8831~2
팩스 02.809-8854
이메일 goldmaeul@gmail.com
홈페이지 <http://www.goldmaeul.net>
밴드 <https://band.us/band/5610016>

I·SEOUL·U
금천구청
(사)마을교육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하차 마을버스 01번, 01-1번 타고 은행나무입구 하차(보도 5분)

- 버스
은행나무로입구 하차 : 5537, 5617
은행나무입구사거리 : 507, 6516, 5619, 5620, 5413, 5525, 마을01, 01-1, 02
시흥5동 주민센터 : 마을11



전입자를 위한 마을안내서

마을여행편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